요한계시록 강해

AN EXPOSITION ON THE APOSTLE JOHN'S REVELATION

〔2판-수정중〕

김효성
Hyosung Kim
Th.M., Ph.D.

옛신앙
oldfaith
2024

머리말

주 예수 그리스도(마 5:18; 요 10:35)와 사도 바울(갈 3:6; 딤후 3:16)의 증거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진술된 대로(1:8),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고 그 본문이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성경의 헬라어 비잔틴 다수 사본들의 본문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 원본의 본문에 가장 가까운 본문으로 여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성경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도 유일한 규범이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으로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암 8:11). 오늘날 많은 설교와 성경강해가 있지만, 순수한 성경 지식과 입장은 더 흐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오늘날 요구되는 성경강해는 성경 본문의 뜻을 명료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일 것이다. 실상, 우리는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성도들은, 유일한 선생님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강해는 오직 작은 참고서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심히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간절함과 건강을 주시고 또 약한 남편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아내를 주시고 또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한 성도들과 합정동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내용 목차

서론 ····· 5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7
2장: 일곱 교회들에 주신 교훈 (1) ····· 19
3장: 일곱 교회들에 주신 교훈 (2) ····· 35
4장: 하늘 보좌의 광경 ····· 47
5장: 어린양께서 찬양을 받으심 ····· 51
6장: 일곱 인 ····· 55
7장: 인 맞은 자들과 흰옷 입은 큰 무리 ····· 63
8장: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 68
9장: 다섯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 72
10장: 작은 책을 먹음 ····· 80
11장: 두 증인 ····· 84
12장: 사탄이 내어쫓김 ····· 93
13장: 두 짐승 ····· 98
14장: 구속(救贖)함을 얻은 자들 ····· 103
15장: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 ····· 115
16장: 일곱 대접 재앙 ····· 118
17장: 큰 음녀 ····· 126
18장: 바벨론의 멸망 ····· 129
19장: 백마 탄 자의 심판 ····· 135
20장: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 ····· 141
21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 150
22장: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 158

본문 혹은 각주에 자주 사용된 약어

KJV (King James Version),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영어번역본들
Byz (전통사본들), M (다수 전통사본들), 전통사본들 다섯 부류들--M^a(74개) M^b(10개) M^c(29개) M^d(13개) M^e(24개), TR (전수본문 성경)(16-17세기)
파피러스 사본들--p^{18}(3-4세기) p^{24}(4세기) p^{47}(3세기) p^{85}(4-5세기) p^{98}(2세기) p^{115}(3-4세기)
대문자 사본들--ℵ (시내 사본)(4세기), A (알렉산드리아 사본)(5세기), B (바티칸 사본)(4세기), C (에브라임 사본)(5세기)
it^h (옛 라틴어역 h사본)(5세기)
vg (라틴어 벌게이트역)(4-5세기) vg^{cl} (벌게이트역 클레멘타인판)(16세기) vg^{ww} (워즈워스-화이트판)(19세기), vg^{st} (스투트가르트판)(20세기)
lat (다수의 옛 라틴어역과 벌게이트역)
latt (대다수의 옛 라틴어역과 벌게이트역)
syr^p (옛 수리아어 페쉬타역)(4-5세기)
cop^{sa} (콥트어 사히딕역)(4-5세기), cop^{bo} (콥트어 보하이릭역)(4-5세기)
cop^{meg} (콥트어 Middle Egyptian역)(4-5세기)
arm (아르메니안역)(5세기)
$Irenaeus^{lat\ gr}$ (이레니우스)(2세기)(lat-라틴어 저서, gr-헬라어 저서)
Cyprian (키푸리안)(3세기), Origen (오리겐)(3세기)
Tertullian (터툴리안)(3세기)
$Diatessaron^{arm\ syr}$ (디아테사론[타티안, 사복음서 대조](2세기) 인용)(4세기)
ms (소수의 사본들), mss (다수의 사본들), pt (일부의 사본들)
* (본래의 본문), ( ) (대략적으로 일치함)
BDAG (F. W. Danker, rev. & ed.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Thayer (Joseph H. Thay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Poole (Matthew Poole, *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김효성,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옛신앙, 2020).
http://www.oldfaith.com/00download/04text/00NTtextual.pdf

서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인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등은 본서를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인용하였고 서방교회에서는 대체로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인정되었다. 동방교회에서는 오랫동안 논란되었으나, 순교자 저스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등은 본서를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인용했고, 특히 수리아의 위대한 교부 에브라임 시루스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반복해서 인용하였다.

본서의 **저작 연대**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인 주후 95-96년경이라고 보인다.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유세비우스 등은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81-96년)의 통치 제15년에 밧모섬에 유배되었고(주후 95년), 도미티안 말기에(주후 96년) 그 섬에서 이 계시를 보았고, 도미티안이 죽은 후에 네르바 황제(주후 96-98년)의 통치 초기에 에베소로 돌아와 트라얀 황제(주후 98-117년)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렀다고 말한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적 주제**는 종말 예언이다. 본서는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강조하며(1:7; 22:20) 그 재림 전에 있을 환난 시대에 대해 예언한다. 이 예언의 목적은 교회들로 환난에 대비해 믿음에 굳게 서고 인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본서에는 "내가 보았다"(εἶδον)는 단어가 57회, "또 내가 보았다"(καὶ εἶδον)는 표현이 32회 나온다. 그 외에도, '어린양'(28회), '주님'(21회) 등의 말이 빈번히 나온다.

본서의 6장부터 19장까지에 증거되어 있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의 **해석**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있다.

1. 과거적 견해--초대교회 시대 즉 로마 제국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상 종말과 주님의 재림 직전의 대환난의 징조들로 본서의 내용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다(마 24장). 그러므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해석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2. 교회사적 견해--사도 시대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교회 역사 전체에 관한 것으로 본다(루터, 벵겔, 반즈, 메이천). 그러나 본서의 내용들이 교회 역사상 어느 정도 나타날 수는 있어도 그것들을 교회 역사상의 구체적 사건들과 일치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3. 영적 견해--역사에서 악의 세력과 참 교회 간의 투쟁의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본다(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제롬, 어거스틴). 그러나 본서의 내용이 악의 세력과 참 교회 간의 투쟁의 진리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지만, 본서가 예언서인 한, 본서는 어떤 미래의 구체적 사실들이나 사건들과 그것들의 전개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언은 비록 상징적일지라도 미래의 어떤 사실들 혹은 사건들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종말론적 견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것으로 본다(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히폴리투스, 터툴리안, 잔). 이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내용과 비슷한 점들이 많다. 박윤선 박사는 종말론적 해석을 중시하면서 영적 해석과 교회사적 해석도 참고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네 견해들에 더하여,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문자적 해석과 비유적 해석이 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1:7; 22:20)과 재림 직전의 대환난(6-19장)과 마지막 심판(20:11-15)을 대비하고 믿음과 인내로 천국을 소망하라는 교훈을 분명히 준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3절, 계시의 성격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啓示)이다. 요한계시록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계시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진리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었다. 갈라디아서 1: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요한이 받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종말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이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자신의 모든 뜻을 계시하셨다(히 1:1-2). 하나님의 진리들은 하나님 자신께서만 계시하실 수 있다. 창조에 대한 진리도, 구원에 대한 진리도, 종말에 대한 진리도 그렇다. 종말 예언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신적 권위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별되신다.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신비가 여기에 있다. 성경은 삼위(三位)[세 인격]의 구별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혹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등으로 표현한다.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는 신성(神性)(신적 본질)과 인성(人性)(인적 본질)을 가진 한 인격이시다. 신성(神性)에 있어서 그는 아버지와 구별되시나 한 하나님이시다. 물론, 인성(人性)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 구별되신다.

이처럼 세 인격의 구별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들의 관계성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성경이 그의 신성에 대해 부정할 수 없게, 분명하게, 충분하게 증거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요 1:1), '참 하나님'(요일 5:20), '크신 하나님'(딛 2:13)으로 불리셨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예컨대, 포도주 기적, 떡 기적, 나병, 중풍병 치료, 죽은 자들 살리심 등), 또한 하나님과 나란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다(계 5:13).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반드시 있을 일들, 즉 종말 사건들에 관한 것이다. 그것들 속에는 대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 죽은 자들의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등이 포함된다. '반드시'라는 말은 계시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종말 예언의 내용들은 진실하고 확실하다. 또한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 요한계시록 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22: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본서의 계시 내용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다. 이 말씀을 주신 지 2천년이 지났다. 교회는 이 말씀대로 때가 가까움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우리는 항상 종말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깨어 있는 태도이다. 사람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작정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벧후 3:8).

계시의 목적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즉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 종들'은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가리킨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로마서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서 6:22,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

본서의 계시는 천사를 통해 그리고 요한을 통해 주어졌다(계 22:8). 또 그 방법은 상징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었다. '지시하신'이라는 원어(세마이노 σημαίνω)는 본래 '상징으로 나타내다'(signify)(KJV)는 뜻이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예언의 책이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계시의 증거자는 사도 요한이다. 요한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책으로 기록했다.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께서 친히 증거하신 진리이며, 사도 요한이 본 바이었다. 본서에는 '본다'는 말(에이돈 εἶδον)이 57회나 사용되었고, 그 중에는 '또 내가 보니'라는 말(카이 에이돈 καὶ εἶδον)이 32회나 나온다. 요한은 많은 상징적 내용들을 환상 중에 보았다. '다 증거하였다'는 말은 요한이 기록한 본서가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하게 기록하였음을 증거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충족한 말씀이다. 성경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딤후 3:16-17).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에 무엇을 가감(加減)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계 22:18-19).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옛날에는 책이 귀하므로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었다. 그래서 읽는 자(단수명사)와 듣는 자들(복수명사)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이 누구나 원하면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지킨다는 말은 성경말씀을 보수(保守)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보수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특히 계시록을 통한 복은 환난을 대비함과 인내와 위로의 복이고(13:10; 14:12) 성도가 환난과 죄악을 이겨 마침내 천국과 영생에 이르는 복이다(22:5, 17).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책인 성경은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참으로 복이 된다.

계시된 내용은 긴급한 일들이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 성도에게는 항상 종말의식이 필요하다. 오늘날은 더욱 그러하다.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 본서와 성경 다른 곳들에 예언된 세상 종말의 징조들인 많은 거짓 목사들의 출현, 교회들의 배교(背敎),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핍박, 세계복음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계에도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오존층 파괴, 폭염, 홍수 등 이상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깝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계시의 책에 주목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가 덮어두어서는 안 될 중요한 책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말씀인 이 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은 종말 예언이다. 우리는 세상 종말 지식을 위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되다. 성경을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되며 큰 평안을 얻는다(시 1:1-3; 119:165). 요한계시록은 특히 장차 올 대환난에서 마귀를 대적할 믿음과 인내를 준비시키며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을 소망하고 위로를 얻게 한다.

4-8절, 문안과 송영

〔4-5a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계셨고] **장차 오실 이**[하나님](M[a b])**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였다. 종말 예언의 계시인 본서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아시아는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어키 지역을 가리킨다. 사도 요한은 먼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하였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다(출 3:14).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 보좌 앞에 일곱 영들'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 신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의 영이심을 뜻한다. 요한계시록 5:6, "[어린양의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그의 충성된 증인 되심, 그의 부활,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심을 언급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충성된 증인이셨다. '증인'이라는 원어(말투스 μάρτυς)는 '순교자'라는 뜻도 가진다. 충성된 증인은 죽기까지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자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죽기까지 증거하신 충성된 증인이셨다. 또 그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며 온 세계의 정치가들의 머리이시다. 그는 만주(萬主)의 주(主)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계 17:14). 우리는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그들에

게 있기를 기원하였다. 은혜와 평안은 성도에게 참으로 복된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호의와 사랑이다.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며 성화를 이룰 수 있다. 평안은 은혜의 결과이며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선 마음의 평안을 가리키지만, 또한 몸의 건강과 일용할 양식과 가정적, 사회적 평안까지 포함한다. 그것은 현세의 평안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평안도 포함한다.

〔5b-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1]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 죄는 인생의 근본 문제이다. 범죄한 사람은 누구나 죽으며 지옥에 던지움을 받아야 마땅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씻음을 받아야 하고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한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대속 사역으로 죄씻음 받는 것이 구주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이다.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9,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한다.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

---

1) Byz vg cop^{bo} 등이 그러함.

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 예언의 중요한 내용이다. 예수님의 승천 시 구름이 그를 가리웠듯이 그의 재림 시에도 그는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9-11,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며 그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자들도 있으나, 후회와 공포 속에 부르짖을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하리라, 아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히 있을 것을 확증한다.

성도들은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는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불탈 것이다. 그것들은 다 불 심판을 받을 것들이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가 다시 오시면 그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8절〕 주 하나님이[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약적 표현이다. 구약성경의 '여호와'는 신약성경에서 '주'라고 번역되어 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시다. 시작은 창조요 끝은 심판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곧 영원자존자이시다. 그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피조물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여기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자존하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주와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이 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믿음을 지키고 성화를 이루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죄와 시험이 많고 슬픔과 수고로움과 고난이 많은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감사하며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로 인해 죽어야 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셨다. 주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포도즙을 나누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다(마 26:28).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들이 되었고(벧전 2:9) 담대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가 친히 약속하셨고 성경에 밝히 증거된 복된 소망이다. 마태복음 24:30,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22: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해야 한다.

9-20절, 계시를 받은 경위

〔9-11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리스도][2]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3]**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님]**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말씀하시기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성도들의 형제라고 말했다. 이것은 노사도의 겸손한 인품을 나타낸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겸손히 처신해야 한다. 그러나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그의 직분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사도 요한은 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다(마 16:24; 행 14:22; 딤후 3:12). 우리는 다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또한 그의 나라와 참음에도 동참하는 자들이다. 환난이 있지만, 그의 나라도 있고 또 참으면 영광도 있다(딤후 2:12). 그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과 승천이 있음과 같다.

사도 요한은 또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가 계시를 받은 경위를 말한다. 그는 주님의 날에 계시를 받았다. 그는 주님의 날에 성령님에 감동하여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날도 주일이며(요 20:19, 26),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었고(행 2:1; 레 23:15-16),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시대에 주일을 복된 날로 구별하시는 표들을 주셨다.

요한은 밧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

2) $M^{a\ b\ c\ (d\ e)}$ vg^{cl} cop^{sa} 등.

3) $M^{a\ b\ c\ (d\text{-}pt\ e\text{-}pt)}$ vg^{ms} cop 등.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섬에 있었다. 전해진 말에 의하면, 그는 밧모섬에 유배를 당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받게 하기 위해 그를 밧모섬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생기지만, 모든 일들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롬 8:28).

사도 요한은 그가 보는 내용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다. 주 예수께서 요한이 본 내용을 책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보관하고 전파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더 굳게 서고 더 큰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 성경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온전함을 위해 성경책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하며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해야 한다.

〔12-16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人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일곱 금촛대와 촛대 사이에 서신 영광스럽고 엄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본 첫 번째 내용은 일곱 금촛대이었다. 그것은 일곱 교회를 가리켰다. 교회는 금촛대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존귀하고 교회는 영광스럽다(엡 5:26-27). 교회를 촛대로 묘사한 것은 그것의 사명을 보인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은 지식과 의와 선과 기쁨을 상징한다.

요한이 본 두 번째 내용은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人子) 같

은 이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상징적으로 묘사되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것은 그의 왕으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낸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것은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그의 눈이 불꽃 같은 것은 그의 깊고 철저한 통찰력을 나타내며 그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것은 그의 심판 권세를 나타내며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것은 그의 말씀의 큰 권위를 나타낸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는 것은 그가 교회들의 목사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심을 나타낸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쪼개는 그의 예리한 말씀을 나타낸다. 그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은 것은 그의 크신 영광을 나타낸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영화로우시고 엄위하시다. 그 영광의 주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재림 직전의 종말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17-20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있도다. 아멘. 또 나는][4] **사망과 음부**[지옥]**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러졌다. 주께서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의 신비는 성경이 증거하는 기본적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4) M[a b c d] syr 등.

에 죽으셨으나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는 죄인들을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구주이시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과 일곱 금촛대들과 '이제 있는 일' 즉 당시의 교회들의 일들과 '장차 될 일' 즉 교회 역사상 되어질 일들과 주님 재림 직전의 일들을 기록해야 했다. 일곱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할 것이다.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목사들의 영적 상태와 충성의 정도를 교인들이 잘 모르고 주님만 아시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주장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의 위엄과 거룩, 통찰력과 능력, 영원하심, 살아계심,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심을 알아야 하고, 특히 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존귀한 교회들과, 별들과 같은 목사들을 주관하심을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세상과 교회들을 주께 맡기며 기도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한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은 비록 부족이 없지 않지만 일곱 금촛대들로 간주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옷의 흉패와 견대에 있는 보석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또 잘 세워나가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특히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들은 촛대들로 표현되었다. 촛대는 빛을 비추는 기구이다. 주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마 5:14). 그것은 우리의 선행을 교훈하신 것이다(마 5:16).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선행이라고 말하였다(딛 2:14). 우리는 전도와 선행으로 지식과 의와 선의 빛을 비춰야 한다.

2장: 일곱 교회들에 주신 교훈 (1)

1-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

〔1-3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그랍손 γράψον)[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케크메카스 κέκμηκας)[피곤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 보내진 각 편지는 그 교회의 사자, 즉 목사에게 보내졌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사자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목사는 교회를 인도하며 장로들은 협력한다. 목사가 바로 서면 교회는 바로 서며 목사가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될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께서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는 목사를 세우실 능력도, 폐하실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므로 자기의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모든 일을 아뢰며 잠잠히 그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한다.

주께서는 에베소 교회 목사의 행위와 수고와 그의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은 다른 이의 중심을 다 모르나, 주께서는 아신다. 특히 에베소 교회의 목사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일은 많은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 힘든 일이요 낙심하기 쉬운 일이지만, 그는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잘 참고 피곤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그의 선하고 충성된 행위를 기억하고 계셨다.

〔4-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의 과거에 잘한 일도 인정하시지만, 현재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책망하신다. 그의 문제점은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이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또 사명자로서 그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참고 충성했으나, 지금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충성을 버렸다는 말이다. 누구든지 지금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함이 없다면 주의 지적과 책망을 피할 수 없다.

주께서는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죄인 속에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일으킴으로 그를 구원한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일생에 한번뿐이다. 그것은 '생명 얻는 회개'(행 11:18)이며 그것이 구원이다. 아직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을 얻는다. 회개치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눅 13:3, 5), 곧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이런 회개를 한 자도 어떤 구체적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이런 회개는 반복적이다.

주께서는 그에게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다. 촛대를 옮기는 것은 교회를 폐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의 교회, 그러나 그 도시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죄를 범했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과 같다. 그것은 무서운 경고이다.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의 목사에게는 아직도 선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이었다. 니골라 당은 14-15절에 있는 대로 우상숭배와 음행을 허용하였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왜곡하고 남용하였던 것 같다. 주께서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셨다. 주의 참된 종들은 이단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열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성령님의 말씀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하나님이시다. 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교회들에게, 즉 지상의 모든 교회들의 사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그 사랑이 날마다 더욱 많아져야 한다.

또 주께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신다. 이긴다는 말은 죄와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악의 풍조를 이긴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는 죄가 많고 사탄과 악령들의 시험이 많고 죄악된 풍조들이 많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속하여 살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며 죄와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악의 풍조와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긴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고 의와 선과 진실을 행한다는 말이고, 진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는 자, 곧 죄에 지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에 지는 자는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영생을 얻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요한일서 5:4,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힘써 노력해야 한다(벧후 1:5, 10).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자가 이긴다.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우리는 선한 일을 힘쓰고 수고하고 오래 참고 피곤해지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몰라주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선행과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힘써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첫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처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가졌던 사랑과 각오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현재 우리의 사랑과 열심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것이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일들에 더 힘써야 한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을 깨달으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한다. 성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을지라도 반복해 죄를 짓거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죄와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악의 풍조를 이겨야 한다. 우리는 모든 불경건과 부도덕을 버려야 하고 사탄과 악령들의 시험을 물리치고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풍조를 배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시고 성령님으로 중생시켜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 자들은 다 이길 것이지만, 그들은 성경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의롭고 선한 삶을 힘써야 한다.

8-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

〔8-9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편지하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와][5]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會)라.**

주께서는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시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만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 하나님께서만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또 주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이시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요 11:25). 우리가 그를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참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활의 주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

주께서는 서머나 교회 목사의 계명 순종과 충성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셨다. 주께서는 우리의 계명 순종과 충성을 아신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경험할 것이다. 사도행전 14:22,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3:14,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비록 서머나 교회의 목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고 평가하셨다. 인생의 참된 부요는 물질적인 데 있지 않고 영적인 데 있다. 물질적인 가치는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가치는 영원하다. 주께서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교훈하셨다(눅 12:21). 또 가난한 자들이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다.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

5) Byz ℵ 등에 있음.

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고 말했다(약 2:5).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그를 가장 큰 위로로 삼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며 사는 자이다.

서머나 교회의 목사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았다. 구약교회는 매우 타락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고 또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했다. 데살로니가전서 2:15, "유대인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구약교회인 유대인들의 모임은 실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고 사탄의 회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어떻게 참된 교회에 속하겠는가? 그들은 분명히 사탄의 회에 속한 자들이었다.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의 목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아야 했다. 고난은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주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전도자로 내보내시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고(마 10:28),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고 말하였다(고후 5:1).

서머나 교회에는 장차 10일 동안의 환난이 있을 것이며 마귀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 교회의 목사가 견고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10일 동안의 환난은 서머나 교회에게 닥칠 문자적으로 10일 간의 환난이든지 혹은 상징적으로 어떤 제한된 기간을 가리킬 것이다.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영속적이지 않고 지나가는 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

주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목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다. '충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참 충성은 죽기 전까지는 증명될 수 없을 것이다. 충성은 죽음을 통해 참으로 증명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2:11, "또 여러 형제[구원 얻은 성도들]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사탄]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확실한 표이다. 물론 참 하나님, 곧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위한 순교와 충성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주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종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생명의 면류관은 면류관의 종류들 중 하나라기보다 생명의 영광 혹은 영광스러운 생명이라는 뜻일 것이다. 죽기까지 참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자는 영광스럽고 복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충성치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에게는 영생의 영광이 약속되지 않는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참된 종들과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곧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모든 내용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 불못의 형벌을 말한다. 요한계시록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1:8,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해 충성치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러나 구원은 반드시 믿음과 인내, 그리고 순종과 충성의 삶을 동반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물질적으로 궁핍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부요하신 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후 8:9; 눅 2:24; 마 17:27; 21:2-3; 18-19). 지상 교회는 때때로 궁핍한 교회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는 사탄의 종들의 비방과 핍박이 있고 투옥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우리는 담대해야 하고(요 16:33)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벧전 5:9).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충성은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주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히 13:13). 주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셨다(요 11:25). 요한계시록 20장은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에 대해 증거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12-17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

〔12-13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와](전통사본)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位)**[보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묘사되신다. 1:16은 그 검이 입에서 나온다고 표현한다. 그 '좌우에 날선 검'은 그의 예리한 말씀, 즉 사람의 죄를 지적하여 영혼을 회개시키는 말씀을 가리킨다고 본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칼과 같다. 히브리서 4:12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을 죽이기도 할 것이다. 주께서는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을 주신다. 버가모 교회의 목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바른 건립은 영적인 전쟁과 같다. 마귀와 불신앙과 비진리를 대항해 싸울 이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기록되었으되" 하며 성경말씀을 사용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기록된 성경말씀을 사용해야 한다.

버가모는 사탄의 위(位)가 있는 곳, 곧 우상숭배의 총본부와 같았다. 그 도시에는 제우스 신의 신전과 아테나 여신의 신전과 디오니소스 신의 신전 외에, 뱀 모양의 의술의 신 에스큘라피우스 신의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다고 한다. 황제 숭배는 초대교회 시대인 로마 시대에 보편적 풍조이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시켰고 구원 얻은 성도

들을 미혹하게 하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목사는 믿음과 순종의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주님의 충성된 증인인 순교자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순교자 못지 않게 충성된 자일 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목사는 그런 사람이었고 주께서는 그의 믿음과 행위를 아셨고 그를 인정하셨고 칭찬하셨다.

〔14-15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목사에게 책망도 하셨다. 우리에게 칭찬거리가 있으면 그가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책망거리가 있으면 그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책망은 그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발람의 교훈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한 한 방책을 일러준 것을 말한다. 그것은 그들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며 그 신들에게 제사한 제물을 함께 먹게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민 25:1-3).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었다(민 31:16). 이와 비슷한 교훈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다. 그것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목사는 그런 자들을 용납하고 있었다.

오늘날도 교회는 우상숭배와 음행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교회가 경계해야 할 우상숭배는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와,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 숭배와, 종교다원주의의 이방 종교 관용이다. 우상숭배의 용납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큰 잘못이다. 오늘날 교회는 또 음행을

경계해야 한다. 현대 사회와 문화는 심히 음란하다. 오늘날 교회에는 심지어 동성애와 동성애자 결혼식, 그리고 동성애 목사까지 용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인들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목사들은 바른 교훈을 전하고 가르치며 교인들을 그 교훈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상숭배와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목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다. 교회 안에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교회의 목사가 회개할 죄이었다. 만일 목사가 회개치 않는다면, 주께서는 그 교회에 직접 개입하실 것이다. 교회가 권징을 회피한다면 주께서 직접 개입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교인들 중에서 죄 지은 자들에게 직접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주께서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신다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입의 칼은 심판의 칼인 것처럼 보인다. 주님의 직접 개입은 목사에게 큰 수치가 될 것이다. 그가 돌보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직접적인 징계를 당할 것이다. 그의 목회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목회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상급은 크게 감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직접 개입하시기 전에 그 교회 목사는 교인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권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는 천국 양식을 상징하는 것 같다. 시편 78:24,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사랑의 식탁

교제를 가리킬 것이다. 또 흰 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옛 시대에 흰 돌은 운동 경기에서 이길 때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 시나, 큰 잔치에 입장할 때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과연 장차 우리가 받을 흰 돌은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 같다. 그 흰 돌은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들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無罪) 혹은 의롭다 하심의 판결을 받을 자들과,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흰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인데, 그것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새 이름은 구원 얻은 자들이 천국에서 사용할 이름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복된 신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사탄의 위(位)가 있는 곳,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도 버가모 교회의 목사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참된 믿음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주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6:24). 요한계시록 2:10,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장차 세상에 임할 대환난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우상숭배와 음행의 악을 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시대는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이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교리적, 윤리적 죄악을 분별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구원 얻었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의와 선을 행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죄악을 정죄하면서 죄악을 용납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가 될 것이며 주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8-29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

〔18-19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사업**[행위]**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것보다 많도다.**

주님의 눈이 불꽃같다고 한 것은 그의 통찰력의 날카로움을 나타내시며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한 것은 그의 심판의 엄위함을 나타내신다고 본다.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에게 이런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주께서 그 목사의 문제점을 통찰하시고 그가 포용한 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암시한다. 오늘날도 주께서는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행위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가 잘한 일에 대해 칭찬하셨다. 그 목사는 주님께 칭찬들을 일들을 많이 했다. 그는 주님를 위해 많은 일을 했고 주님을 사랑했고 믿었고 섬겼고 인내했다. 이것들은 다 좋은 점들이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하며 또 환난 중에도 오래 참는 자 되기를 원한다. 또 두아디라 교회 목사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들보다 많았다. 그는 참으로 진실한 목사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주님을 믿고 섬겼으며 점점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겼다.

〔20-21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네 아내](전통사본)[6]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진실히 주를 믿고 섬기는 목사에게도 문제점이 있었다. 그의 문제점은 버가모 교회 목사의 문제점과 같이 잘못된 자를 포용하는 데 있

6) M[a b c d] A syr Cyprian 등이 그러함.

었다. 그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의 아내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의 아내는 선지자로 자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옛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처럼 우상숭배자이었다. 그 여자는 주의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우상숭배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는 이 죄악을 용납하고 있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도 포용주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들과 천주교회를 포용하거나 심지어 동성애 같은 악을 포용하고 있다. 주께서는 확실히 그들에 대해서도 책망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주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믿을 기회를 주신다. 그들은 그 기회에 지체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구원 얻지 못한 자이었을 것이다. 교회 속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회개치 않는 죄인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들을 보면 낙심할 것이 아니고, 힘써 권면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하여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속지 말라,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고 말했다(고전 15:33-34).

〔22-23절〕 볼지어다, 내가 그[그 여자]**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주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목사 사모에게 벌을 선언하셨다. 첫 번째는 그를 침상에 던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를 병상에 눕게 하심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이는 것이었다. 이것은 주님의 공의의 징벌이었다. 이로써 모든 교회는 주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죄는 은밀한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주께서는 사람의 그 은밀한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드러나게 징벌하신다. 주님 앞에는 비밀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는 오늘날에도 공의로운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24-25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감사하게도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여자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 해이해지고 넓어진 교회들 속에도 순진한 교인들이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주께서는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교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셨다. 그는 그들에게 단지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그의 재림의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사탄의 은밀한 활동이 많이 있다고 보인다.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하고 비성경적 교회연합운동이 활발하고 은사주의의 혼란과 교회 음악의 타락, 동성애의 용납 등이 그 증거들이다. 현 시대는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주께서 남겨두신 참된 교회들이 이곳 저곳에 있고 참된 목사들과 성도들이 이곳 저곳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끝까지 속죄신앙과 개혁신앙을 지키고 거룩과 의와 선과 진실을 행하기를 원한다.

〔26-29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일"이라는 말씀은 주께서 명하신 주님의 일들을 가리킬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심판 권세이다. 주께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시며(계 12:5) 이 권세를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9: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人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도 바울도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다(고전 6:2). 또 주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 새벽별은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하셨다(계 22:16).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두라디아 교회 목사는 나중 행위가 처음것보다 많았다. 우리의 선한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처음 믿었을 때보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자라고 풍성해져야 한다.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과 선행이 자라가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는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아내를 용납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잘못이 있을 때 그를 책망하고 고치게 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우상숭배와 음행의 악을 멀리해야 한다. 악의 포용은 교회를 부패시킨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우리는 가족들 중에 있는 악이라도 용납지 말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 교회연합운동, 은사주의, 여자 목사, CCM, 열린예배, 낙태, 동성애까지 용납하는 풍조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교리적, 윤리적 오류들을 분별하고 배격하고 성경에 밝히 계시되고 증거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굳게 믿고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3장: 일곱 교회들에 주신 교훈 (2)

1-6절,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

〔1절〕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님을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신다.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한 것은 그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자이시며 성령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자이시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지식, 또 그의 통찰력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다.

주께서는 사데 교회의 목사의 행위를 아셨고 그의 행위에 근거하여 그를 판단하셨다. 우리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혹은 불완전한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만, 주께서는 그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그의 마음과 인격의 표현이다. 사람의 말은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고 심지어 위선적일 수도 있으나, 사람의 행위는 그것을 그대로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판단하시지만, 특히 행위에 근거하여 사람을 판단하신다.

사데 교회 목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다. 그와 그의 교회는 사람들의 보기에 매우 활동적이었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활동적이라는 것이 교회가 건전하다는 표시는 아니다. 이단들도 매우 열심이 있고 이방종교인들이나 공산주의자들도 그러하다. 열심이 있다는 것이 진리를 소유한 표시는 아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어떤 성질의 열심이냐가 중요하다.

사데 교회의 목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이었다. 죽었다는 말은 영적 의미이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게 활동

하고 있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었다고 간주되었다는 말이다. 그의 활동은 바른 지식과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행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지 못했다. 의롭고 선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으로 보기 어렵다. 의롭고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씀을 보면, 사데 교회의 목사는 아직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 그에게 죽게 된, 죽어가고 있는 남은 바가 있었다. 그것은 복음 신앙의 뿌리이었거나 중생했으나 연약한 생명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죽을 처지에 있었다. 그 남은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목사는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행위의 온전함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행위를 가리키고, 행위의 온전치 못함은 불경건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행위를 가리킬 것이다. 사데 교회의 목사에게는 행위의 온전함이 없었다.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기억하고](KJV, NASB, NIV)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성도가 받았고 들었던 바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진리이다. 사데 교회의 목사는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지키어 회개해야 하였다. 과거의 기억은 유익하다. 특히 구원의 기억이 그렇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찬송가 405장).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긍휼로 우리를 회개시켜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회개해야 한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은 오늘

과 내일의 신앙생활에 힘이 된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데 교회의 목사가 일깨지 않으면 주께서 도적같이 그에게 임하실 것이며 직접 개입하실 것이다.

〔4절〕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목사의 영적 상태를 따라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도 있다. 사데 교회는 목사가 영적으로 죽은 자이었으나, 그 교회에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몇 명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자들이었다.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다. 흰옷은 순결을 뜻한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흰옷이며 그를 믿는 속죄신앙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또 성도는 그 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바르고 선한 일을 힘쓴다. 그러나 흰옷을 입은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이 바른 믿음을 저버렸고 해이해졌고 죄의 낙을 누렸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는 다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였다.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다.

〔5-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흰옷 입은 목사, 흰옷 입은 직분자들, 흰옷 입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흰옷 입은 무리의 수에 들어야 한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의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흰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흰옷을 더럽히는 자요 영적으로 죽어 가는 자이다. 교인들은 산 자와 죽은 자, 흰옷 입은 자와 흰옷을 더럽히는 자,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

흰옷 입은 자들의 구원은 확실하다. 주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않고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 주님만 바라고 죄를 대항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의 구원은 확실하여 주께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흰옷을 더럽히는 자들 곧 죄를 짓는 자들의 구원은 보장될 수 없다.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서 구원을 말하는 것은 거짓된 확신이며 그가 구원을 소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소망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행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모양이나 이름이나 평판만 가지지 말고 실제로 참 믿음과 선한 행위를 가져야 한다. 사데 교회의 목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으나 죽은 자 혹은 죽어가는 자이었다. 우리는 그런 자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실제의 인격과 삶이다.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 얻은 자라면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에 증거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잘 파악하고 굳게 지켜야 한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받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내용들을 다 믿고 보수하고 그것들에 합당한 경건하고 바르고 선한 행위를 가져야 한다. 특히,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는 현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바른 교훈을 굳게 붙들고 지켜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의의 흰옷을 입은 자는 그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며 이신칭의(以信稱義)의 복음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하며 또한 그 복음 신앙에 합당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7-13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

〔7-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아니하였음이라].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에게 보낸 편지이다. 주께서는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말씀하시며 또 다윗의 열쇠로 문 곧 천국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 14:6).

주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열린 문은 천국의 확실한 보장을 가리킨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 천국 문을 여신다. 주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신다. 그는 요한복음 10:28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에게 열린 문을 주신 이유는, 그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린 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때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는 큰 재능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대가는 주께서 주신 열린

문, 곧 천국의 확실한 보장이었다.

우리는 힘과 재능이 없다고 핑계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두렵고 떨릴지라도,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신앙의 순결과 절개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온전한 말씀 순종의 삶을 말한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 세속의 죄악된 풍조에 물들지 않는 것,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작은 힘으로도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해야 한다.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께서는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라고 부르셨다. 구약교회인 유대인들의 모임은 부패되고 타락하여 사탄의 모임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고 신약교회를 핍박하였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15-16에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했다. 타락한 종교는 세상보다 더 악한 것 같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 앞에 굴복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 신실한 목사에게 내리시는 보상과 같았다. 주께서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실 것이다.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인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심을 종종 이렇게 나타내신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

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에게 한 가지 더 복된 약속을 주셨다. 그것은 주께서 친히 그를 지키어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시험의 때는 대환난의 때를 가리키는 것 같다. 물론 그것은 그 목사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뜻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대환난을 겪을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요한계시록 7:14,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옛날에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들 중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고센 땅이 그 재앙을 받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은혜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대환난 중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께서는 단지 한 가지를 그에게 요구하셨다. 그것은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보수를 의미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과 우리가 받은 역사적 기독교 진리들을 굳게 믿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일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우리는 장차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길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과 영생을 빼앗으려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주께로부터 받은 성경말씀 안에 굳게 서고 유일한 복음인 예수 그리

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굳게 믿어야 한다.

〔12-13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참된 성도를 가리킨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꼭 필요한 기둥 같은 인물이 된다는 뜻일 것이다. 또 주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임을 확증하신다는 뜻일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의 교훈은 모든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말씀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믿고 굳게 지키고 인내하며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크든지 적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부인치 않았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 즉 중세시대에 로마천주교회가 잃어버렸다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영적 어둠에서 다시 발견한 이신칭의(以信稱義)의 복음 진리를 잘 이해하고 믿고 그 복음 신앙, 속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그 역사적 기독교가 옛신앙이다. 우리는 그 신앙을 지켜야 한다. 온 세상에 마지막 대환난이 올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며 환난과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오직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를 굳게 믿고 성경 교훈을 행해야 한다.

14-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

〔14-16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편지하라.] **아멘**[진실]**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곧 만세 전에 그가 택하신 자들의 대속을 이루시는 일에 충실하셨고 그의 뜻을 참되게 증거하셨다. 주께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에게 교훈하시는 뜻이 있어 보인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주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표현하셨다. 고대의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 우주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3, “만물이 그[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며 철학자들의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시다.

주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다. 차거나 더웁다는 표현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일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열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다. 주께서는 그의 미지근한 태도를 지적하

시며 그가 분명한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신다. 즉 믿는가, 믿지 않는가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는 것이다. 미지근한 태도는 믿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참 믿음에 방해가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믿는 자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이렇게 미지근한 태도를 미워하신다. 미지근한 태도는 꾸며진 불신앙이나 일종의 위선일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을 미워하신다. 그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신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즉 교인수나 재정에 있어서 부유했던 것 같다. 그 교회 목사는 자기 만족에 빠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네가 가난하다'고 말씀하셨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으나 영적으로 빈곤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서머나 교회의 목사의 경우와 정반대이었다. 서머나 교회의 목사는 외적으로는 빈곤하였으나 내적으로는 부유한 자이었다(계 2:9).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외적으로는 부유하였으나 내적으로는 빈곤한 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재정적 부유함을 크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적, 신앙적 부유함을 크게 여기신다(눅 12:21).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리킬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다(벧전 1:7).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확신을 가리킬 것이다. 우리의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였고(롬 13:14),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했다(갈 3:27). 또 안약은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안(靈眼)을 밝게 하는 성령님의 지혜를 가리킬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님께 살 수 있다. 주님에게서 산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나타낸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실상,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것들을 간구할 때 그는 그것들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1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과 권면과 회개의 촉구는 다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부족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고 또 책망하시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버려두셨거나 아니면 벌써 쳐서 데려가셨을 것이다.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때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충고한다. 만일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2:5-6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라고 말했다.

〔20-22절〕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주님을 문밖에 세워두었다. 목사이었지만 그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 주께서는 그의 몸을 성전으로 삼지 못하셨고 그를 떠나 계셨다.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경우이다. 그는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해야 했다.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는 즐거운 식탁 교제, 즉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은 심판날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진리를 확신해야 한다. 라오디게아 목사의 문제는 미지근한 데 있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주께 대한 불신앙과 의심이 있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있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식도 없었고 단지 세상적 가치관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우리는 이런 미지근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과 그의 복음 진리를 확신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무슨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회개해야 하며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 즉 성경말씀의 깨달음과 기도의 문의 열림과 그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것이다.

4장: 하늘 보좌의 광경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었다(계 1:10, 12). 본문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듯이 신약교회의 휴거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 중 천상의 광경을 보게 된 경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란 사도 시대 이후의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종말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2-3절〕 내가 곧 성령[님]**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께서] **있는데**[계시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5:1에 그의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케 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므로 그의 본체는 아무도 볼 수 없으나 때때로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여전히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와 녹보석 등 상징적인 말로 묘사되었다. 벽옥은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며, 홍보석은 그의 공의와 심판의 엄위하심을 나타내시고, 무지개는 그의 신실하신 긍휼의 약속을 나타내시고, 또 녹보석은 그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시는 것 같다.

〔4절〕 또 보좌에 둘려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도 요한은 보좌에 둘려 있는 24보좌와 거기에 앉은 24장로들도 보았다. 24장로들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 같다. 24라

는 수는 구약교회의 열두 지파들과 신약교회의 열두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요한계시록 21:12, 14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문 위에는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성곽의 열두 기초석 위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었다. 또 24장로들이 입은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성결을 가리키고, 그들이 쓴 금면류관은 장차 교회가 누릴 존귀와 영광을 상징할 것이다. 우리의 소망과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바라며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며 산다(고후 4:18).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워질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5-7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시]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이는 것 같다. 또 보좌 앞의 일곱 등불,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영이시다. 그는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위, 그들의 은밀한 일까지도 다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사도 요한은 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 것도 보았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구약시대에 성전의 바다에 비교된다.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는 일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대하 4:6). 천상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흠과 점 없는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네 생물들은 천사들을 대표하는 것 같다. 그 생물들의 안에 눈이 가득한 것은 그들의 통찰력과 지식의 풍성함을 상징할 것이다.

그 네 생물들의 모습은 에스겔서의 묘사와는 다르지만(겔 1:10-11; 10:14) 그 상징하는 바는 비슷하다고 본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사자는 불굴의 용맹스러움을 상징하며, 송아지는 온순함과 충성을 상징하며, 사람은 지혜를, 독수리는 쇠하지 않는 생명력과 민첩함을 상징할 것이다. 천사들은 악령들과의 전투에서 용맹스럽고, 온순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충성하며 지혜롭고 총명하며 민첩하며 쇠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다.

〔**8-11절**〕 **네 생물이** [둘레에]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그 안에](MT)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7]](NASB, NIV)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말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주님과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찬양하기를 힘썼다. 천사들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천사들의 존재는 실재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며(시 103:22)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가사의 노래들을 미워하시나, 진리에 합한 노래들을 귀히 보신다. 물론, 찬양은 가사뿐 아니라, 곡과 리듬과 박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에 맞게 아

7) $M^{a-pt\ b\ c}$는 '거룩하다'는 말이 9번, $\aleph^{*}$는 8번 나온다.

름다워야 한다(시 96:9).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한다.

24장로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 드렸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렸다. 성도의 찬양의 근본적인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창조주께서만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과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시지만, 성도는 사실상 그런 상을 받을 만한 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천상에서도 고백해야 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어둡고 불완전한 현실만 보지 말고 천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또 천국의 영광을 묵상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온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엄위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천국의 영광도 그러하다. 고린도후서 4: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골로새서 3:2,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둘째로, 우리는 장차 의의 흰옷, 즉 죄성이 전혀 없는 영광스런 몸과 금면류관을 쓸 것을 감히 소망한다. 이것이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복된 영광이다. 빌립보서 3:20-21,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役事)[활동]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로마서 8: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셋째로, 우리는 네 생물들의 덕, 즉 사자 같은 용맹, 송아지 같은 온순함과 충성, 사람의 지혜, 독수리 같은 쇠하지 않는 생명력과 민첩함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종들과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오늘날에도 필요한 덕이다.

5장: 어린양께서 찬양을 받으심

〔1-5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獅子) 다윗의 뿌리가[께서] 이기었으니[이기셨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든 책은 장차 될 일들, 즉 교회 역사와 세상 종말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쓴 책일 것이다. 안팎에 썼다는 말은 그 내용이 많고 자세함을 보인다.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은밀히 감추어진 내용이라는 뜻이다. 이제 그 인봉이 하나씩 떼어지며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계시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종말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의인의 영들 중에도 없고, 땅 위에 살아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죽은 자들 중에도 없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하여 울었을 것이다.

그때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가르쳐 주었다. 유대 지파의 사자(獅子)요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창세기 49:9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는 예언과 이사야 11:1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는 예언 등에 묘사된 바와 같다. '뿌리'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22:16에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나타낸다고 본다. 실상 다윗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다.

'이기셨다'는 말은 마귀의 시험과 죄와 세상의 악을 이기셨다는 뜻

일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과 죄와 세상의 악을 이기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救贖) 사역을 성취하셨고 이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셨다.

〔6-7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이시더라]. **어린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본 어린양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상징한다. 그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한 속죄를 완성하셨고 부활로 그 사실을 확증하셨다. 어린양에게 있는 일곱 뿔은 그의 신적 능력을 보이고 일곱 눈은 그의 신적 통찰력과 지식을 보인다. 그 일곱 눈은 온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령님이시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또다시 증거된다.

어린양께서는 종말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을 취하셨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며, 어린양께서는 하나님의 구속(救贖)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세상의 미래와 종말 사건들, 마지막 심판과 천국 영광까지를 계시하실 자격자가 되셨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린양에 의해 하나씩 계시될 것이다(계 6:1).

〔8-10절〕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엎드렸고 장로들은]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8]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말하기를]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우리를][9] [당신의, 주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왕들](전통사본)**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

8) '가졌다'는 남성현재분사(ἔχοντες)의 주어는 '장로들'이라고 본다.

9) Byz ℵ (vg arm) cop^{bo} Cyprian 등이 그러함.

어린양께서 책을 취하실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자이시다. 24장로들은 각각 거문고와 향 대접을 가지고 있었다. 성도의 기도들은 향에 비교되었다.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 죄의 고백, 및 바른 소원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과 같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을 노래하는 노래를 가리킨다. 어린양과 같으신 예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세계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救贖)하셨다. 그러므로 참된 찬송은 속죄 찬송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해야 한다.

또 주께서는 그의 속죄사역으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왕들이 되었다. 우리는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이다(계 20:6; 22:5).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다.

〔11-12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사도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수는 천천 만만으로 표현되리만큼 매우 컸다. 그들은 어린양께 능력과 부(富)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 어린양의 능력과 부(富)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과 부(富)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특히 신성(神性)을 가지신 그가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

의 책임과 형벌을 대신하기 위함이셨다. 그렇지 않으셨더라면, 사람들에게 죄씻음의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양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도 어린양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다. 그들의 찬송은 합당하였다.

〔13-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말하기를]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지 만물들, 즉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타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리는 만물의 영광스러운 합창이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다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한번 더 증거된다. 만물들의 찬송에 대하여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경배하였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말 사건들을 계시해주셨다. 신적 구주이신 그는 대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자격자가 되셨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계시를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믿고 그의 속죄사역을 감사해야 한다. 사람으로 오신 주 예수께서는 본래 다윗의 뿌리이시며 능력과 지혜가 완전하신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친히 그의 피로 온 세상의 택자들을 구속(救贖)하셨고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송해야 한다.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천천 만만의 천사들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어린양께 영원한 찬송을 돌렸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찬송해야 한다.

6장: 일곱 인

1-8절,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1-2절〕 내가 보매 어린양이[께서]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와서 보라 하더라.][10] (**내가 이에 보니**)[그런데 보라,]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께서]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하신 어린양께서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장래 일이 예언된다. 첫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흰말과 그 탄 자를 보았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좋은 뜻으로 사용된다. 흰색은 성결과 의를 나타낸다. 인자(人子) 같은 이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눈같이 희었다(1:14). 신실한 성도들은 흰 돌을 받았고(2:17) 흰옷을 입었다(3:4). 또 재림의 주님은 흰말을 타고 오실 것이며(19:11)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를 것이다(19:14).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보좌도 흰 보좌일 것이다(20:11). 그러므로 본절의 흰말과 그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그레다너스, 박윤선) 혹은 그의 거룩한 심판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가 면류관을 받으시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신 것은 그의 사역이 승리적이심을 보인다.

〔3-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와서 보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과 그 탄 자는 전쟁을 상징한다고 보인다. 그가 '큰 칼'을 받은 것은 전쟁으로 인한 큰 살육을 뜻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볼

---

10) $M^{a\ b\ e\text{-}pt}$ ℵ it vg^{cl} 등이 그러함.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예언한 것일지도 모른다. 말세의 한 징조는 국가들 간의 갈등과 전쟁들이다. 주님의 재림 전에 큰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요한계시록에는 본절 외에도 유브라데 강 부근에서 2억의 군사가 동원될 전쟁과(계 9:13-16),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들어옴으로 세계적 연합군이 형성되어 아마겟돈(므깃도 언덕)에서 마지막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다(계 16:12-16).

역사상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으나, 그 모든 전쟁들 중에서도 20세기에 치룬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처참한 전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죽은 군인들만 거의 1,000만명에 이르렀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군인들만 약 1,700만명이었다고 한다. 민간인 사망자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서방세계와 공산진영으로 서로 대립되었고 아직까지 그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공산화의 꿈을 버리기 전까지는 그러할 것이다. 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아랍 국가들 간의 뿌리깊은 종교적 갈등이 있다. 만일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핵무기와 화학-생물학무기들을 동원한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매우 처참한 전쟁이 될 것이다.

〔5-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와서 보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전통사본은 생략함)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검은 말과 그 탄 자는 기근을 상징함이 분명하다. 손에 저울을 가진 것은 식량의 배급을 상징하며 그것은 식량이 부족할 것을 뜻한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고, 한 되는 보통 사람의 1일분 식량이라고 한다. 하루 품삯으로 한 되의 밀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식량값이 매우 비싼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식량의 큰 부족을 나타낸다. 보리는 밀보다 품질이 낮은 식량이다. 그러나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서민들의 기본적 식용유, 의약품, 음료수가 허용됨을 보이는 것 같다.

주님의 재림 전에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7, "처처에 기근들과." 기근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근래에 더욱 심해진 것 같다. 월드북 백과사전(*The World Book Encyclopedia*)에 의하면, 1870년대에 남부 인도에서 약 5백만명이 기근으로 죽었고, 중국에서는 9백만명 이상이 죽었다. 1929년과 30년에는 중국의 황허강의 홍수로 인한 기근으로 약 2백만명이 죽었다. 1943년 동부 인도 벵갈에 대기근이 있었다. 제2차 대전 후 150만명 이상 기근으로 죽었다.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부 사헬 지역과 남부 아프리카, 특히 이디오피아 등에서 수백만명이 죽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19년 세계에 약 8억 2천만명이 식량 부족 상태에 있다고 보고했다.[11]

〔7-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말하기를] **오라**[와서 보라][12] **하기로** (**내가 보매**)(전통사본에는 생략됨) **청황색**[창백한 색, 회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陰府)[무덤]**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무서운 전염병(BDAG, NASB, NIV)]**과 땅의 짐승**[들]**으로써 죽이더라.**

청황색 말과 그 탄 자는 사망을 상징한다. 그의 뒤를 따르는 음부는 무덤을 가리킨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은 전쟁과 기근과 무서운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 죽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 전에 많은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7, "기근들과 전염병들(전통본문)과." 역사상 세계적 전염병이 간혹 있었다. 14세기에 유럽에서 흑사병(페스트)으로 약 2,500만명, 세계적으로 약 1억명 이상이 죽었

1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6/96495148/1.

12) $M^{a\ b\ e\text{-}pt}$ ℵ vg^{cl} 등이 그러함.

다고 알려진다. 20세기에 들어와, 1918년에 시작된 스페인 독감으로 약 1,500만명이 죽었고(약 5,000만명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음), 1968년에 시작된 홍콩 독감으로 약 100만명 이상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다. 동성애와 관련 있다고 알려진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세계적 확산은 위협적이다. 에이즈는 1981년 처음 보고된 이후 2014년까지 30여년간 그로 인한 전 세계의 사망자 총수는 약 4,000만명이고, 매년 사망자수는 약 200만명에서, 2013년 약 150만명, 2018년 약 77만명이었다. 2013년, 전 세계에 에이즈(HIV) 감염자수는 약 3,300만명으로 추정되었다.[13] 2020년 1월에 시작되어 온 세계를 위협했던 코로나 전염병은 700만명 이상을 죽게 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은 오늘 시대가 주님의 재림 직전 시대라는 징조들이라고 보인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의 주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 직전의 대환난 시대의 징조들이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치신 바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대환난에 대비하는 굳건한 믿음과 충성된 마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들과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참된 믿음과 충성된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마태복음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10,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

13) 임도이, “에이즈 발병 30년 … 사망자 얼마나 되나?” 헬스코리아뉴스, 2014. 12. 1;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884; 국경없는의사회, 현장소식, 2019. 7. 17; https://www.msf.or.kr/article/4352.

9-17절,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9-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伸寃)하여**[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린양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고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전 12:7).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즉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더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마 10:28).

신앙의 핍박과 순교는 종말의 징조이며 대환난 시대의 한 특징이다. 물론, 경건한 자는 항상 핍박을 각오해야 했다.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했다(딤후 3:12). 그러나 주님의 재림 직전에 특히 그럴 것이다. 주께서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마 24:9-10).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한 짐승에 대해 "[저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증거했는데(계 13:7) 그것

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며, 또 그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예언하였다(계 13:15).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공의의 보응을 탄원하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보응하신다는 도덕 질서를 위하여 또 기독교가 참된 진리임을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또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탄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는 그 핍박자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으로 말미암은 성결과 의를 상징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순교하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간청하는 기도가 있었지만 또한 참된 안식도 있을 것이다.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사람의 시간표의 수천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에 불과함을 보인다(벧후 3:8).

이처럼 다섯째 인의 환상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순교자들이 더 있을 것을 보인다.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 로마 제국 시대와 중세의 천주교회 시대, 일제시대와 공산 치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마지막 심판 때 전까지 순교자들의 죽음은 더 있을 것이다.

〔12-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모직부대]**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덜 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어린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은 큰 지진과 천체의 큰 변동을 보았다. 해는 총담같이 검어졌다. '총담'은 털실로 짠 거무

스름한 부대자루를 가리킨다.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덜 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졌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갔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런 묘사는 극심한 천재지변을 나타낸다. 큰 지진들과 천재지변들은 종말의 한 징조라는 사실이 계시된 것이다.

천재지변들은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 직전의 한 징조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께서는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4:29). 요한계시록 8:12에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고 예언되어 있다.

특히 큰 지진들은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 직전의 한 징조이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지진들이 세상 종말과 자신의 재림 직전의 한 징조일 것을 말씀하셨다(마 24:7). 또 요한계시록 11:13은 두 증인의 승천 후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명이라고 증거하였고 요한계시록 16:17-20은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큰 지진이 있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 큰 우박이 있을 것이라고 증거한다. 큰 지진의 힘은 약 1억 8천만 톤의 티엔티(TNT) 폭약과 같으며, 그것은 1945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용되었던 원자폭탄의 약 만 배의 위력이라고 한다.

월드북 사전에 의하면, 역사상 대지진들이 간혹 있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 더 빈번해졌다. 20세기에 5천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진들은 24개 이상이 되며, 그 중에 2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은 14개나 된다. 5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큰 지진만 열거해본다면, 1908년 이탈리아 멧시나 7만 5천명, 1920년 중국 중앙부 간서 20만명, 1923년

일본 도오꾜-요코하마 약 14만 3천명, 1932년 중국 중앙부 7만명, 1935년 인도 쿠에타(오늘날의 파키스탄) 6만명, 1970년 페루 침보테 약 6만 8천명, 1976년 중국 북동부 헤베이 24만명 등이다.

〔15-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그의](전통본문)[14]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평소에는 담대하고 때때로 교만하기까지 한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대환난의 날에 두려워 떨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의 진노를 피할 곳을 찾기에 급급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위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고 말했었다(사 2:19). 대환난은 어린양의 진노의 큰 날이다. 불경건한 자들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핍박과 순교와, 큰 지진의 징조를 나타낸다. 이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참된 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고 순교도 있을 것이며 또 큰 지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성경의 예언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또 고난과 핍박과 순교도 각오하며 역사적 기독교 신앙 곧 성경적 신앙, 옛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 창조자, 섭리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의 교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

---

14) Byz A cop$^{sa-ms\ bo}$ arm 등이 그러함.

7장: 인 맞은 자들과 흰옷 입은 큰 무리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은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고 환난 시대에 대한 계시의 중간에 주신 위로의 말씀이라고 본다. 땅 네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등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일상적 표현이다. 바람은 환난을 가리킨다. 네 천사가 땅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은 성도가 감당할 만한 것 이상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 예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하셨다(마 24:20-22). 환난 기간의 통제는 하나님의 은혜다.

〔2-3절〕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환난은 중지될 것이다. 인을 친다는 것은 확증의 표시이다. 중요한 문서들에는 확인의 도장을 찍는다. 하나님의 인은 인 맞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증하는 것 즉 구원의 보장이다. 이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인치셨으므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10:28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救贖)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다(엡 1:13, 14). 또 그는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赤身)[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했다(롬 8::35, 38, 39).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4-8절〕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 지파가 빠졌고 그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 있다. 또 에브라임 지파 대신 요셉 지파의 이름이 들어 있다. 각 지파의 인 맞은 14만 4천명은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명을 가리키지 않고, 구속(救贖)받은 모든 성도의 완전 충만한 수를 상징한다고 본다. 12는 3과 4를 곱한 수로서 완전한 수를, 1,000은 충만한 수를 상징하며 12x12x1,000은 완전 충만한 수를 상징한다고 본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14만 4천명을 세상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근거는, ① 본문

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며, ② 요한계시록 9:4의 황충 재앙에서 그 재앙이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임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③ 요한계시록 14:3에 보면, 14만 4천명은 '땅에서 구속(救贖)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구속받은 성도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약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29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했고, 갈라디아서 6:16에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구원 얻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9-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말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앞에서 말한 14만 4천명과 동일한 무리라고 본다. 그들은 대환난 전에 인침을 받았고 대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은 교회의 세계성을 말한다. 교회는 온 세계에 하나이며 그 구성원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다는 말은 구원 얻은 자들의 수가 충만함을 말하며, 이것이 14만 4천명으로 상징되었다고 본다. 흰옷은 성결과 의를 가리키며, 종려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할 것이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대환난을 무사히 통과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힘찬 찬송이 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이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구원이 하나

님께 달려 있다고 가르친다. 로마서 9: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하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다. 요한복음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므로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이시다. 그는 구원의 길을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11-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모든 천사들은 성도들의 찬송에 화답하였다. 그들은 구원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일임을 노래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같은 죄인을 그의 기이한 방식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을 그의 능력으로 살리셨고 우리가 속죄 신앙을 지키고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항상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13-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을 통과해 나오는 흰옷 입은 성도들에 대한 환상은 대환난을 직면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 환난을 통과할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뿐이다(요일 5:4-5).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알지 못하는 자는 환난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종교적 형식은 소유하였으나 참 종교의 실질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속죄 신앙을 가진 자마다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15-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사**(포이마이네이 ποιμαίνει)[저희를 먹이시며](KJV)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대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천국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천막을 치셔서 더 이상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이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며 또 더위로 인한 해가 없도록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救贖)받고 의의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 대환난을 통과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이것은 대환난을 통과해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5:4,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이겨 나가야 한다.

8장: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1-2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半時)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侍衛)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의 주요 구성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며, 그 셋의 연관은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곱 인들 중 6장에 기록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환상은 전쟁, 기근, 죽음, 순교, 큰 지진 등 대환난 시대에 대한 묘사이었다. 거기에는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언급이 있었다(6:8). 이제 8장에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의 환상을 보이며, 그것은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강화된 재앙을 보인다.

마지막 시대의 재앙을 나팔로 표현한 것은 경고의 뜻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라는 경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환난을 준비하라는 경고일 것이다. 그러나 16장에 일곱째 나팔로 계시될 일곱 대접 환상은 하나님의 경고의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선포되는 것이라고 본다. 본문에 '반시(半時) 동안쯤의 고요함'은 다가올 환난과 재앙이 심히 크고 두려울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대환난 앞에서 믿음과 기도로 준비해야 하며 불신자는 이제라도 회개해야 한다.

〔3-6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金)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香煙)[향의 연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본절은 성도들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며 또 그 결과로 하나

님의 공의의 심판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시행됨을 나타낸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시행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성도들의 기도는 강력한 무기와 같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며 사탄과 악령들의 일들이 파하여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게 한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에서도 항상 깨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요한계시록 본문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 해석이 어려울 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 나팔의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것이다. 그 불로 인해 땅의 3분의 1과 나무들의 3분의 1과 모든 풀들이 태워질 것이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우박 재앙이나 혹은 전쟁으로 인한 땅의 황폐함을 보인다. 땅은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므로 땅과 나무들의 3분의 1과 모든 풀들이 불태워진다는 것은 실로 사람들의 생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땅과 나무들의 3분의 1만 타고 3분의 2가 남겨지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둘째 나팔의 재앙은 불붙는 큰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다. 그 일로 인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다. 그것은 핵 폭탄 같은 것으로 인한 바다의 황폐함을 보인다. 바다와 배들은 특히 어부들과 상인들의 주요 생활 수단이므로 이 재앙으로 인한 타격도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이 재앙으로 바다와 바다 생물들과 배들의 3분의 1만

타격을 받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다.

〔9-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의 재앙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 일로 인해 강들과 물샘들의 3분의 1을 쑥과 같이 쓰게 만들고 그 쓴 물을 마시는 자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나 혹은 화학무기 같은 것으로 인해 지구의 물들이 오염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은 사람에게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런데 물들의 3분의 1이 오염되었고 물들의 오염 때문에 세상에 큰 고통이 올 것이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췸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의 재앙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두워지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에게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때 지구는 태양 빛의 양이 줄어듦으로 갑자기 추운 겨울을 맞을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재앙이다.

위의 네 가지 재앙들은 천재지변이나 천체의 큰 변화나 혹은 핵무기나 화학무기 같은 것으로 인한 육지와 바다의 변화로 보인다. 이것들은 복음서들의 예언과 일곱 인의 예언과도 일치한다. 예수께서는 그의 재림의 징조로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4:29). 또 일곱 인의 재앙은 전쟁과 기근과 큰 지진 등을 언급하였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

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주께서는 독수리들로 남은 세 재앙들이 사람들에게 화가 될 것을 선포하셨다. 앞에서 증거된 네 재앙들도 두렵지만, 남은 세 재앙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특히 16장에 기록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은 앞에 증거된 재앙들보다 더 두려운 재앙이 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한다. 성도들의 찬송과 감사와 간구는 하나님 앞에 향의 연기같이 올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들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며, 그것은 종말 사건들의 예언의 성취도 포함될 것이다. 대환난도, 악인들에 대한 공의의 보응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복음 21: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人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장차 일어날 땅과 바다와 강들을 황폐케 할 천재지변과 세계적인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이며 다 이루어질 것들이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천재지변들과 세계적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만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그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죽으면 즉시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담대히 원한다(고후 5:8).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울 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다.

9장: 다섯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1-12절, 다섯째 나팔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아뷔쏘스 ἄβυσσος)(땅속 깊은 곳)**의 열쇠를 받았더라.**

어떤 주석가들은 이 별을 사탄 혹은 타락한 천사로 보고 어떤 이들은 정반대로 거룩한 천사로 본다. 그러나 이 별을 말 그대로 하늘의 별로 보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넷째 나팔까지도 문자적으로 해석했듯이, 다섯째 나팔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NIV)고 한 것은 별이 땅에 떨어져 큰 구멍을 낸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본다. 하늘에서 큰 별이 하나 떨어지면 지구에 큰 충격이 생겨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큰 구멍이 뚫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권한과 허락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말해왔다. 소행성이란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 수십만개의 작은 별들을 가리키며 지구에 근접하는 것들로서 지구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240개 가량이라고 한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2002 NT7이라는 소행성은 직경이 2km로 추정되며 초속 약 28km(시속 약 10만km)로 달리고 있는데 2019년 2월 1일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다. 그것의 충돌 충격은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2천만개의 위력이며(미 우주항공국 NASA 제트추진연구소에 의하면, 그것은 TNT 100만 메가톤[1조톤]의 폭발 충격일 것이라고 했다) 그때 엄청난 먼지 구름이 대기권을 덮으므로 태양을 가려 1년 이상 겨울이 지속될 것이며 또 충돌 지점의 국가들

이 초토화되는 것은 물론, 대규모 해일이 일어나고 오존층이 파괴됨으로써 2년간 자외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생물체들에 돌연변이와 암과 백내장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였었다.[15]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소행성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2-3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메뚜기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 별로 인해 뚫어진 땅속에서는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 연기로 인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것은 역사상 유래 없는 심각한 대기 오염 사건일 것이다. 또한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메뚜기들이 올라올 것이다. 이 메뚜기들은 문자 그대로 땅속에서 올라온 특별한 생물들로 볼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들 중의 하나를 위해 준비된 해로운 생물들일 것이다.

〔4-6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앞장에서도 나무와 풀, 바다, 고기, 배, 강과 샘, 해와 달과 별들 등을 다 문자적 의미로 보았듯이, 본문의 풀과 나무도 문자 그대로 풀과 나무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메뚜기 재앙은 자연 세계에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한 자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은 재앙에

15) 조선일보, 2002. 7. 25, 14쪽; 7. 27, 11쪽.

서 면제됨을 보인다. 하나님의 이 재앙은 차별적인 재앙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들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였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으셨던 것과 같다. 시편 91:1-3, 5-7,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메뚜기 재앙은 다섯 달 동안 고통을 주는 재앙이다(5, 10절). 그 메뚜기들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전갈은 쏘는 독을 가진 생물이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 다섯 달 동안 이런 전갈의 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것이다.

〔7-10절〕 황충들[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戰場)**[전쟁터]**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메뚜기들은 보통 메뚜기들과 달랐다. 그것들은 전마(戰馬)들처럼 기동성이 있고 그들의 활동은 승리적이고 사람 같은 지혜를 보이고, 사자 같은 잔인함을 나타내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두려울 것이다. 그것들은 마지막 환난 날을 위해 준비된 생물들이라고 보인다.

〔11-12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無底坑)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사탄은 그 메뚜기들의 왕이다. 아바돈,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뜻이다. 그것은 사탄에게 해당되는 명칭이다. 사탄과 악령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와 신약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파괴하는 파괴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나라와 교회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세상의 재앙들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가능하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게 땅속 깊은 곳의 열쇠가 주어짐으로써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에게 열쇠를 주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기도 하시고 주지 않기도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의로운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은 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벌거벗은 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했고 고난 중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욥 1:21-22).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사 45:6-7).

둘째로,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메뚜기 재앙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에게만 주어질 재앙이다. 그러므로 그 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을 주지 못할 것이다. 또 그 재앙은 다섯 달 동안만 계속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정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그의 뜻만 행하며 그의 편에 서서 참고 기다려야 한다.

13-21절, 여섯째 나팔

〔13-15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金壇)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금단(金壇)은 향을 사르는 금향단을 가리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며 금향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가리킨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에 능력으로 응답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정하신 종말 사건들은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다.

유브라데 강은 오늘날 시리아와 이라크를 통과해 페르샤 만으로 흐르는 강이다. 그 주위에는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한으로 억제하고 있던 것을 풀어주라는 뜻이다. 그것은 중동 지역이 세계대전의 격전지가 될 것을 암시한다. 중동은 전 세계의 석유의 주 공급원이며 게다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나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지막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될 만하다.

장차 유브라데 강 주위에서 일어날 세계대전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그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정확한 연도와 월일과 시각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만세 전에 다 아실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셨다. 전쟁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중동에서 일어날 거대한 세계대전도 그러하다.

그런데 그 전쟁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매우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암시한다. 20세기에 일어났던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도 참혹한 전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군인들은 약 천만명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군인들은 약 1,700만명이었고 민간인까지 합하면 약 5천만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절에 예언된 이 전쟁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할 매우 참혹한 전쟁이다. 2024년 세계 인구가 약 80억명인데, 요한계시록 6장에 예언된 넷째 인으로 4분의 1이 죽으면 약 60억명이 남고 그 중에서 3분의 1이 죽으면 약 20억명이 죽게 된다는 뜻이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전쟁이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인류가 수많은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차 세계대전은 핵무기(원자폭탄, 수소폭탄), 화학 무기(독가스탄), 생물학 무기(세균탄)를 사용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어느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구 소련의 의학연구소장 리콜라이 볼로킨은 핵 군비축소에 관한 과학자 회의 연설에서 “핵전쟁이 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는 핵암으로 쓰러질 것이다”라고 말했다.[16] 그의 말은 성경의 예언과 일치한다. 만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류가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16-19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거대한 세계대전에는 2억명의 군인들이 동원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는 말은 그 수가 실제적 수임을 보인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여전히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러시아

16) 조선일보, 1983. 5. 19.

와 중국, 또 이슬람교 신앙으로 단합될 아랍 국가들의 총인구를 생각한다면, 중동에서 발발하리라고 예상되는 이 세계대전에 참여할 군인들의 그 거대한 수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인구 80억명 중 미국이 약 3억 3천만명, 유럽연합이 약 5억명, 러시아가 약 1억 4천만명, 중국이 약 14억 3천만명, 아랍연맹이 약 3억 2천만명이다. 이 세계대전에 동원될 현역병과 예비군의 수는 매우 클 것이다. 또 본문은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으로 무장하고 그들의 무기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들의 힘이 그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은 그 전쟁 무기들이 전방과 후방에 화력 발사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것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20-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銅)과 목(木), 석(石)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나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재앙보다 더 슬픈 사실이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대환난 시대의 환난들과 재앙들의 목적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죄인들의 교정과 회개를 위함이 아니다. 택함 받은 죄인들은 이미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환난과 재앙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노뿐이다. 그러므로 6:16-17에서는 이것을 '어린양의 진노,' '그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불렀고, 8:13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두고 화, 화, 화라고 표현하였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리시는가?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무슨 죄 때문인가? 로마서 1:18 이하에 언급된 대로 불경건과 음란과 불의의 죄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불경건의 죄 가운데는 성경말씀대로가 아니고 인본적, 세속적 방법으로 목회하는

목사들과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의 행위들도 포함될 것이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큰 전쟁의 불행을 통과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재앙을 당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과연 회개할 기회가 올지는 미지수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행 11:18). 그러므로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들 때 회개해야 한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때이다. 우리는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할 때에 즉시 회개해야 한다.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했다(사 55:6).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장차 세계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세계대전은 지구의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무서운 전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대량살상무기라 부르는 핵무기(원자폭탄, 수소폭탄), 화학 무기(독가스탄), 생물학 무기(세균탄)를 사용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이다. 대환난의 징조들과 세계적 전쟁들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어느 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대로 정직하고 선하게만 살고 그가 약속하신 영광스런 천국과 부활과 영생만 사모해야 한다. 이 세상은 참으로 죄악되고 헛된 세상이며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불타버릴 장망성(將亡城)이다. 우리는 오직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즉시 회개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영영히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10장: 작은 책을 먹음

〔1-4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17]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뢰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뢰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뢰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본문의 매우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천사는 주석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신약성경과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로 표현한 곳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6절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는 것도 천사에 더 적합하다고 보인다.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은 펴 있는 책이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증거될 종말 예언은 공개된 내용이다.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선 것은 그 예언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보인다. 과연 그는 그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사자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때 일곱 우뢰가 그 소리를 발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말세에 큰 소리로 외쳐야 할 경고의 말씀이다. 사도 요한은 일곱 우뢰의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다. 일곱 우뢰 소리들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래의 사건들의 계시 범위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 있다.

〔5-7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

---

17) 본장에는 '작은 책'이라는 말이 네 번 사용되었다. 전통사본에 보면, 비블리온(βιβλίον)이 두 번(2, 10절; M[a b]), 비블리다리온(βιβλιδάριον)이 두 번(8, 9절) 사용되었다. 그 두 단어는 다 '작은 책'이라는 뜻이다(Thayer).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말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혹은 "시간이 더 이상 없으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자이시다.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종말의 사건들과 심판은 그의 손 안에 있다. 세상의 창조자께서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 사람들이 바라고 의지할 자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은 창조자나 주인이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만드셨고 그가 다스리시는 세상이다.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참 평안을 얻는다.

그 천사가 맹세하며 말한 내용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골로새서 2:2,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전통본문). 예수님의 성육신(成肉身), 그의 대속(代贖)의 죽음, 그의 부활, 승천, 재림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때가 되어 이루어졌고, 이제 그의 재림 하나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남은 종말 사건들은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22: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진실로 오시옵소서"(전통사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의 정하신 때에 다 성취될 것이다.

〔8-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말하기를]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와 방언**[들]**과 임금**[들]**에게**(에피 ἐπί)[에 관하여](concerning (NASB, Thayer), about(NIV))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천사의 손에 펴 놓인 그 작은 책은 종말 예언의 책인데, 요한계시록 전부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11장부터의 내용을 가리킬 것이다. 책을 취하여 먹는다는 것은 종말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뜻할 것이다. 성경은 영의 양식이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힘써야 한다. 모든 성도들은 성경말씀에 정통해야 한다. 이것은 성도에게 거룩한 의무요 복된 특권이다. 입에 단 것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의 즐거움을 말할 것이다. 시편 119:92, 143,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러나 배에 쓴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내용을 음미할 때 오는 마음의 고통과, 이 말씀을 지키며 전하려 할 때 예측되는 고난을 나타낼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렘 4:19-20). 사도 요한은 이제까지 예언하였지만, 다시 온 세계의 나라들과 백성들에 관하여 예언해야 했다. 요한은 종말 예언의 말씀

들을 책에 기록하여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였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 사건들에 대한 예언은 봉인된 내용이 아니고 세상에 공개된 내용이다(2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은 이 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둘째로, 세상과 역사의 대종말이 곧 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며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그런 종말 의식이 필요함을 교훈한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한다. 누가복음 21:34-36,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人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셋째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 예언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즉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그 내용 중에는 세상과 역사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진리도 포함된다. 사도행전 17:30-31,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셨고(마 4:17),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증거하셨다(눅 24:47).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증거한다.

11장: 두 증인

1-14절, 성전과 두 증인의 환상

〔1-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팡이 같은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구약적 표현이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일차적으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또한 그의 몸된 교회인 참된 성도들도 가리켰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전 3:16).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참된 성도들을 가리키며 '척량한다'는 말은 소유물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는 대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보존하신다. '성전 밖 마당'은 성전 뜰만 밟는 중생치 못한 형식적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거나 인간적 교제나 세상적 유익을 위해 다니는 자들이다. 그들은 본질상 불신자들이다. 이런 형식적 교인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밖에 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킬지 모르나, 그보다 이름만 가진 형식적 기독교인들의 세계를 가리킨 듯하다. 그 속에는 천주교인들, 각종 이단종파 신자들, 자유주의자들도 포함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연합운동의 세계일 것이다. 이름만의 기독교 세계는 이방인에게 마흔 두 달, 즉 3년 반 동안 짓밟힐 것이다. 이 3년 반은 대환난 기간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3년 반을 뜻하든지, 아니면 너무 길지 않은 어떤 기간을 상징할 것이다.

〔3-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님][18]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이다. 말씀하는 자는 그리스도이시라고 보인다. 두 증인이 나타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간, 즉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할 것이다. 두 증인의 증거는 확실한 증거로 여겨진다. 예수께서는 전도자들을 둘씩 내보내셨다(눅 10:1). 굵은 베옷은 금식하며 회개할 때 입는 복장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것이다.

1260일은 신약교회시대를 가리킬지 모른다. 주께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눅 21:24)고 예언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다. 그러나 1260일은 여섯째 나팔로 계시된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되는 전쟁이 끝난 후에 이방인들이 형식적 교회들과 교인들을 핍박하는 기간에 더 적합해 보인다. 또 아마 그 기간에 두 증인이 나타날 것이다.

두 증인들은 이 땅의 주님, 곧 하나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되었다. 이 표현은 구약 스가랴 4장의 환상에 나오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비슷하다. 본문의 두 증인은 3년 반 환난 기간 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신약교회나 충성된 두 명의 종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들이 감람나무라 불리는 것은 성령님의 끊임없는 공급을 받기 때문이며 촛대라 불리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 곧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

18) M UBS ℵ C 등이 그러함. 그러나 $M^{d\ e}$ TR KJV 등은 '하나님.'

그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진 신약교회나 두 명의 종들일 것이다. 모세가 물로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였듯이, 또 엘리야가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며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또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같이, 그들은 그 사역기간 동안 여러 능력의 일들을 행할 것이다.

〔7-8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아마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그 두 증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무저갱'은 깊은 구덩이를 가리킨다. 짐승으로 표현된 이 자는 짐승같이 사납고 난폭하며 이성과 도덕성이 없는 인물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예언된 '불법의 사람' 곧 '죄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전제적(專制的), 독재적 통치자와 동일한 인물로 보인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초대교회로부터 활동해왔다. 역사상 로마제국과 로마 천주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활동하였다. 그들은 많은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였고 또 죽였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특별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며 그가 나타나면 그 두 증인들과 싸워 이길 것이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보인다.

두 증인들의 시체가 놓여질 큰 성은 적그리스도의 본거지일 것이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었다. 소돔은 음란한 도시이며 애굽은 우상숭배의 나라이었다. 또 그 도시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 즉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된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본거지는 소돔과 애굽과 예루살렘으로 표현된다. 그

도시는 뒤에 나올 음녀와 바벨론으로 묘사된 큰 도시와 동일한 도시일 것이다. 그것은 참된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도시를 가리킬 것이다. 역사상 로마가 바로 그런 도시이었다.

〔9-10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온 세상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 증인들의 설교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그들의 죄를 회개치 않고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1-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 동안뿐이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 혹은 생명의 기운이 들어감으로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구경하는 자들은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더구나 부활한 그 증인들은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예언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는 잘 알 수 없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모든 성도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하늘로 올리울 것이다.

〔13-14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두 증인의 승천이 있을 때, 그 큰 성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파괴되고 7천명이 죽게 될 것이며, 그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옛날 애굽의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했듯이(출 9:27; 10:16, 17; 단 2:46-47), 이런 행위가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지나갔다. 첫째 화는 황충 재앙이고, 둘째 화는 유브라데 강에서의 큰 전쟁과 그 후에 있을 두 증인의 사역과 큰 지진이다. 이제 마지막 화만 남았다. 그것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계시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성전 뜰만 밟는 형식적 교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자들은 쭉정이와 같고 가라지와 같고 염소와 같다. 그들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주님의 비유에서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던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고, 주께서 맡겨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다.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고 말하였다(딤후 4:3-4).

둘째로, 우리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며 바른 목사들의 교훈을 즐거움으로 받고 믿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며 서로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성도들이 구원 얻은 표를 지닌 자들이며 환난 날에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할 자들이다.

셋째로, 우리는 참된 증인들로서 순교를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증거해야 한다. 환난 날에는 고난을 각오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많은 형식적 교인들이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승리할 것이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15-19절, 일곱째 나팔과 하늘의 찬송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와 그**[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일곱 천사들의 나팔로 말미암은 종말 예언들이 하나씩 계시되는 가운데, 이제 일곱째 천사의 나팔로 말미암은 종말 예언이 계시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다. 그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외치는 소리이다. 그것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주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16절 이하에 교회를 대표했다고 보이는 24장로들의 화답하는 내용도 그러하였다.

세상 나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주 하나님을 가리킨다. 세계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역사이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예언했다(단 2:4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다(마 4:17). 신약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확장의 시대이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구원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또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이 세계의 역사의 목표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과 완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표이다.

〔16-18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말하기를]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호 판토크라토르 ὁ παντο-κράτωρ)[시]**여,** [이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왕노릇하심이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은 하늘의 큰 소리에 화답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렸다. 24장로들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한다고 보인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열두 지파와 신약시대의 열두 사도를 대표했다고 보인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장차 오실 자'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재림의 때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재림의 시간을 미리 앞당겨 하나님의 통치권이 드러났음을 노래한 것이라고 보인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17절에 나타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활동하던 사탄과 악령들의 일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하심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이유요 내용이다. 18절도 계속 감사의 이유를 말한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의 통치 내용에 대해 좀더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은, 이방인들이 분노했을 때 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은 철저하고 공정한 심판일 것이다. 그 심판의 결과는 보상 혹은 멸망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세상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24장로들의 감사의 내용과 이유이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혹은 '주님의']19)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

박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다.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 자체를 상징한 듯하다. 요한계시록 21:22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곧 천국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히브리서 9:23-24에는 하늘 성소에 대해 말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성전 혹은 성소는 천국 자체, 특히 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상징했다고 본다. 사도 요한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보았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을 보았다. 사도 요한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 곧 십계명에 의거한 것임을 보인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 즉 십계명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일 것이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위함을 나타낼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17절,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출 3:14). 그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라고 본다. 시편 90:1-2, "주님이시여, 주께서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17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자이시다. 창세기 18:14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치

---

19) MT $M^{a\ c}$ p^{47}이 그러함. '그의'--TR UBS $M^{b\ d\ e}$ A C가 그러함.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욥은 욥기 42:2에서 "주께서는 무소불능(無所不能)하시오며[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고백하였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라고 고백하였다(렘 32:17).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다.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17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시편 99:1-2,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시편 93:1-2,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의인들과 악인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는 영생의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지옥의 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 곧 율법에 따라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시편 98:9,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로다. 저가 의(義)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로마서 2:6-8,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12장: 사탄이 내어쫓김

〔1-2절〕 하늘에 큰 이적[표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의 한 큰 표적, 즉 해를 입은 한 여자의 광경을 보았다. 이 여자는 구약교회를 가리켰다고 본다. 그가 해를 입은 것은 교회가 의의 해이신(말 4:2)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나타내며(갈 3:27), 그의 발 아래 달이 있음은 교회가 온 세상을 복음 전파로 정복함을 나타내는 것 같고, 그의 머리에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쓴 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나타내었다고 본다. 아이를 배어 해산하려 한 것은 구약교회가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한 것을 나타낸다고 보인다.

〔3-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표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도 요한은 하늘의 또 다른 하나의 표적, 즉 큰 붉은 용의 광경을 보았다. 그 용은 사탄을 가리킨다. 그것이 크고 붉은 것은 그의 세력이 크고 심히 잔인함을 나타내며 그의 머리가 일곱인 것은 그의 지혜가 매우 큼을 보이고 그의 뿔이 열인 것은 그의 힘이 매우 큼을 암시한다. 사탄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것은 사탄이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킨 것을 가리킨 것 같다. 사탄과 더불어 타락한 그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악령들 즉 귀신들이다. 그 용은 그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 하였다. 그것은 사탄이 헤롯 왕을 통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일을 가리킬 것이다(마 2장).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때부터

그를 죽이려 하였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게 하였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올려갔더라].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설명되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리어 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켰다고 본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저가 보양함을 얻도록](NASB)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1260일 동안 사탄의 핍박을 피하도록 광야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피난처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인다. 1260일은 신약시대 전체를 상징한 것이든지, 혹은 대환난 기간 중의 한 부분을 가리킬 것이다.

〔7-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것은 천사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 곧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싸운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용과 그의 천사들은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천사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난 때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완성된 직후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고(눅 10:18) 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2:31). 사탄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완성으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다.

〔9절〕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속이는](KJV, NASB)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천

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큰 용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범죄케 했던 옛 뱀, 곧 마귀 즉 사탄이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이다. 사탄과 그를 따랐던 천사들은 다 땅으로 쫓겨났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지금 성도들을 속이고 그들을 시험에 떨어지게 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핍박한다. 그들은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영들이다. 그들은 항상 세상을 속이고 더럽히고 불행케 해왔지만(엡 2:2) 특히 구원 얻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게 하고 범죄케 하고 멸망시키려고 열심을 낸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였고(벧전 5:8), 사도 바울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했다(엡 6:10-12). 성도들은 사탄과 악령들과 싸우고 있다.

〔10-12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말하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쫓겨났음이라.] **또 여러 형제가**[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때문에]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사랑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들은 하늘의 큰 음성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음성이 분명하다. 그 음성의 내용은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들을 거짓되이 비난하던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이었다.

또 그들의 음성은 진실한 성도들이 승리했음을 말하였다. 진실한 성도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고 그를 믿었고 그를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라"고 증거하였다(롬 14:7-8).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두 가지이었다. 첫째는 어린양의 피 때문이었고, 둘째는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 때문이었다. 어린양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은 멸망치 않는다. 그의 피는 효력이 있다. 주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요 6:39). 또 복음 진리도 성도의 승리의 힘이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를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했다(행 20:32).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은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들을 헐뜯고 비난하던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탄이 땅에 내려왔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성도들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3-17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보양]**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싸우려 하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전통사본은 생략함).[20]

사탄은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사탄의 핍박을 피할 길도 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 같은 것이다.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피할 곳을 가지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땅도 성도들을 도와 사탄의 악한 활동을 막는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신약교회시대 혹은 대환난 기간의 일부인 삼년 반 즉 1260일을 가리킬 것이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은 대환난의 시작과 강화와 중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다.

사탄은 진실한 성도들과 싸우려고 준비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미 죽은 자들과 순교자들을 제외하고 땅 위에 살아 있는 진실한 성도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롭게 사는 자들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사탄과 악령들을 알아야 한다. 사탄은 큰 용, 옛 뱀, 마귀라고 불리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이다. 사탄과 악령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참된 교회 즉 참된 성도들을 대적하고 세상을 속여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구원 얻은 성도들과 사탄의 큰 싸움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탄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신앙생활은 사탄과 악령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강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행해야 한다(엡 6:10-11).

셋째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 앞서간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탄을 이기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신구약 66권의 성경말씀을 믿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

20) Byz vg^{mss} $cop^{sa\ bo}$는 생략하고 13:1에 연결됨.

13장: 두 짐승

〔1-2절〕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전통사본)[21]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본장에는 두 짐승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첫째 짐승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3에 예언한 대로,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죄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라고 본다. 그것은 어떤 강력한 독재자나 독재적 국가일 것이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그 인물 혹은 국가가 열국들 중에서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 같다. 그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은 그가 많은 지혜와 권세가 있음을 보인다. 그 짐승의 머리들에 참람된 이름들이 있는 것은 그가 심히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임을 나타낸다. 옛날 로마 황제들은 신적 명칭을 자신에게 돌렸었다. 천주교회의 교황들도 신성모독적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렸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신성모독적일 것이다. 또 그 적그리스도는 표범같이 날쌔고 곰같이 덮치고 사자같이 찢는 힘과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것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줄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세상을 어지럽힐 사탄의 도구가 될 것이다.

〔3-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

21) Byz vg^{mss} $cop^{sa\ bo}$ 등에 있음.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본문은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나 인물이 죽게 되었다가 회복되므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므로 온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에게 경배하며 또 그에게 경배하며 그를 높이고 추앙할 것을 보이는 것 같다. 장차 온 세상은 불경건하고 반기독교적이게 될 것이다. 사탄 숭배는 보편화될 것이다.

〔5-7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와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람된 말들을 많이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4:15). 또 사도 바울도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살후 2:3-4). 또 그 적그리스도는 42개월 즉 3년 반 동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즉 온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며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그때 성도들은 큰 핍박과 감금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때가 될 것이나 참 성도들은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것이다.

〔8-10절〕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창세 이후로'라는 말은 '죽임을 당한'이라는 말에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짐승의 제물로 표현되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 속죄신앙이 참 신앙이다. 우리의 의(義)는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성도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악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러나 속죄신앙이 없는 자는 실패하고 멸망할 것이다. 구원은 종교적 형식에 있지 않고 속죄신앙 여부에 있다. 속죄신앙을 가진 자들만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므로 악한 자들의 악에 대해 공의로 징벌하실 것이다. 성도들을 사로잡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사로잡힐 것이며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참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야 하며 고난 중에도 참고 기다려야 한다.

〔11-12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짐승을 보았는데, 그것은 새끼양 같았다. 이 둘째 짐승은 16장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로 불리며(계 16:13; 19:20; 20:10)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것의 근원을 보인다. 배교한 교회는 세상에 속한다. 그것이 어린양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인 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하는 말은 사탄의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배교한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하고 복종하게 한다.

〔13-15절〕 [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나의 백성](Mⁿ ᶜ)**을 미혹하며**[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는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주의 교회이다. 주께서는 재림 직전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었다(마 24:24). 또 사도 바울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고 예언하였었다(살후 2:9-10). 또 그 배교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며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을 죽일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16-18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배교한 교회는 사람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은 장차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 벌써 이런 유의 통행증이 특별한 곳들에서는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짐승의 숫자 666은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는 글자로 수를 표시한다. 예컨대, 히브리어로 '로마 사람'(로미시 רומיתי), '로마 왕국'(로미스 רומיית)이나 헬라어로 '이탈리아 교회'(이탈리카 에클레시아 ιταλικα εκκλησια), 또 라틴어로 교황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 vicarius filii dei) 등은 다 666이 된다. 종교 개혁자들,

루터와 칼빈, 존 낙스 등과 존 웨슬리와 요나단 에드워드 등은 로마 천주교회와 교황을 그 짐승으로 보았다. 또 다른 이들은 666이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나 인물을 가리킬 것이라고 본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속죄신앙을 가져야 한다. 8절,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구원 얻은 성도들의 의와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복음 신앙이며 구원 신앙이다.

둘째로, 우리는 은사주의, 기적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배교한 교회의 특징은 은사주의적이다. 우리는 기적들과 초자연적 은사들에 미혹되지 말고, 바른 교훈을 붙들고 바른 삶을 중시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특히 우상숭배를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 짐승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도 경배하게 하였으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였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배교와 우상숭배가 유행할 것이지만, 우리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로,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며 큰 핍박의 때가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심히 불경건하고 불법한 자이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며 거짓 선지자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것이며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매매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 성도의 덕은 인내와 믿음이다.

14장: 구속(救贖)함을 얻은 자들

1-5절, 구속(救贖)함을 얻은 자들

〔1-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께서]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하프]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하프]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救贖)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은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신 것을 보았다.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시온산은 천국이다. 히브리서 12:22,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사도 요한은 그와 함께 14만 4천명의 성도들이 서 있는 것도 보았다. 이 14만 4천명의 성도들은 땅에서 구속(救贖)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즉 교회를 가리키며 7장에 증거된 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본다. 그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소속과 소유권을 나타낸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이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도 들었다. 그것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았고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타는 소리와 같았다. 그것은 분명히 14만 4천명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이었다. 참된 성도들은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찬송을 부를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명의 성도들밖에는 배울 자가 없는 새 노래이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좋아하며 불렀던 노래들, 민요든지 유행가든지, 그것들은

다 옛 노래들이다. 우리는 이제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과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은 죄악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노래를 좋아하지 않으며 또 부르기를 원치 않는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이다. 어린양의 피로 구속(救贖)받은 자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속죄 신앙을 가진 성도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또 증거하는 노래이다. 구원 얻은 자들은 새 노래를 배우고 그것을 부르고 그것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시편 98:1,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4-5절〕 이 사람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처녀들]라. 어린양이[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22] **구속(救贖)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도 요한이 본 14만 4천명은 땅에서 구속(救贖)함을 얻은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첫 열매들이다(롬 8:23; 약 1:18).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을 계획하셨고 택하신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셨다. 그들은 첫 열매들과 같다. 성도들의 구원이 충만히 성취되면, 온 세상 만물이 회복되며 새로워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1:5,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본문은 구속(救贖)받은 성도들의 특징들을 묘사한다. 첫째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 정절이 있는 자들, 처녀들이라고 표현된다. 여자들은 죄악된 세상을 가리킨다(약 4:4). 또 구속받은 성도들은 흠 없는 자로

22) $M^{a\ c}$에 있음. 그러나 $M^{b\ d\ e}$ p^{47} ℵ A C 등은 생략함.

표현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흠 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다(엡 1:4).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티나 주름잡힌 것이 없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었다(엡 5:26-27).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죄악되고 멸망할 세상을 다시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그들이 과거에 술 마시고 방탕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은 다시 그런 세상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들이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와 같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에서(전통본문)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하였다(고후 11:2-3). 또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한 것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권면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자라면, 우리는 모든 잘못된 사상과 교리, 모든 잘못된 행위와 풍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며 경배하며 또 오직 성경에 밝히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믿고 그를 따르며 섬기고 그 성경 교훈들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원문).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그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므로 성경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목사의 성경적 교훈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태도이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말씀만 따라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명령이 보이는 대로, 그가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삶이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항상 즐겁고 평안한 길은 아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때때로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가시는 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즐거이, 자원함으로 따라가야 한다.

셋째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 즉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다. 거짓말은 마귀의 죄악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거짓은 사탄의 종들의 특징이고, 진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불에 던지울 것이다(계 21:8, 27; 22:15).

천국에서 어린양과 함께 서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 14만 4천명의 성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갔으며 거짓이 없는 자들이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땅에서 구속(救贖)함을 얻은 자들인가? 땅에서 구속(救贖)함을 얻은 14만 4천명의 성도들은 어린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십자가 속죄사역을 믿는 것이다. 속죄신앙이 구원 신앙이다. 여러분에게는 이 속죄신앙이 있는가?

둘째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명은 여자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곧 세상의 죄와 쾌락에 빠지지 않은 자들이며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한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눅 9:23).

넷째로,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며 지옥 갈 죄악이다.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6-12절, 세 천사들의 외침

〔6-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말하기를] **하나님을**[혹은 '주님을']23)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 때때로 천사를 사용하신다(계 1:1; 8:2; 10:1; 16:1).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수행함을 나타낸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었다. 그것은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되지 않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복음이다. 그 효력은 영원하다. 로마서에 밝히 증거된 복음은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는 소식이며 언제나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할 소식이다.

그 천사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천지와 바다와 샘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고 외쳤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매우 근본적인 진리들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잠 1:7; 9:10).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도 가능하다. 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한다. 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를 경배하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마음가짐과 삶이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

---

23) $M^{a\ b}$ vg^{cl}이 그러하나, $M^{c\ d\ e}$ TR p^{47} ℵ A C 등은 본문과 같음.

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사도 요한은 다른 한 천사 곧 두 번째 천사의 외침을 들었다. 그 외침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내용이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두 번 반복한 것은 그 무너짐의 확실함을 나타낸다.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날에 확실히 무너질 것이다. 이 바벨론은 17:5, 18에서는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는 큰 음녀요 그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하고, 19:3, 10에서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해 부요함을 얻었던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고, 16:19에서는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 큰 지진으로 인해 세 갈래로 무너질 큰 성이라고 말한다.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의 해석은 다양하다. 어떤 이들은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보고(헹스텐버그), 어떤 이들은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본다(헨드릭슨, 박윤선). 또 어떤 이들은 이 바벨론이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킨다고 보고(매튜 풀, 벵겔, 알포드, 반즈), 또 어떤 이들은 이 바벨론이 말세에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고 본다(포셋, 렌스키, 비더울프). 이 마지막 두 견해 중 하나가 적절해 보인다. 장차 배교한 기독교회는 로마 천주교회와 연합하여 한 교회를 이룰 것이라고 본다. 짐승을 탄 음녀(17:3)인 이 바벨론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세속화된 배교한 교회를 가리키며 그것은 아마 로마 천주교회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보인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다. 여기의 '음행'은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다 가질 것이다. 배교한 교회는 음행의 풍조를 퍼뜨리는 일에 앞장 설 것이며, 또 이단들을 포용하고 이방 종교들을 포용하는 신학적 포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의 교회가 될 것이고, 또 물질적 부요와 육신적 향락을 조장하는 세속화된 교회가 될 것이다. 현대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

옛날 로마 천주교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였었다. 그것은 큰 성 바벨론과 같았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청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그 바벨론이라고 생각했었다. 오늘날 온 세계의 배교한 교회들의 연합체인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또다시 로마 천주교회와 연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세계적인 배교한 교회들의 중심에 또다시 로마의 교황이 서게 되리라고 보며, 또다시 로마 교황청이 세계의 종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배교한 교회는 마침내 망하고 말 것이다.

〔9-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천사 곧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을 들었다. 그것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는 선언이다. 배교한 교회의 교인들 곧 신앙의 변절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그는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신앙을 버리고 변절한 자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이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의 장소다. 거기에서 악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미래의 사실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오직 인내가 필요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義)이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이다. 성도는 은혜로 구원 얻은 자이지만, 의로운 행위로 그 구원을 증거해야 한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구원의 증거가 된다.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의로운 행위 없이 구원 얻는 것도 아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죄 가운데 사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죄와 싸우며 모든 죄를 떠나야 한다(요일 3:10).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참 신앙은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보수 신앙이며, 그것이 바른 신앙이며, 그것만이 영생에 이르는 신앙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로마서에 밝히 증거된 영원한 복음, 곧 이신칭의(以信稱義)의 복음을 확신해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그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별하는 잣대가 된다.

둘째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배교한 교회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장차 멸망할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또 우리는 성경적 교훈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 교훈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교훈 안에서 양육되는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한다. 우리는 배교한 교회들의 연합운동을 배격하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바른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바른 믿음은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가리킨다. 우리는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한다. 또 우리는 돈이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경 교훈을 지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끝까지 실천해야 한다.

13-20절,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 추수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말하기를]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저희는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며 저희의 행한 일들이 저희를 따르리라](전통사본) **하시더라.**

'이제부터'라는 말은 '복음 신앙을 가진 때로부터'라는 뜻이다. 복음 신앙은 곧 구원이 되며 복음을 믿고 죽는 자는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므로 복되다는 뜻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죽음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은 대환난 시대에 순교자들이 많을 것을 암시한다(계 6:11).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영적 연합 속에서' 죽는다는 뜻이다. 사람이 주님 밖에서, 복음 신앙 없이 죽는다는 것은 큰 불행이다. 왜냐면 모든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죄의 값인 죽음 곧 단지 육신의 죽음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눅 16:19-31).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다. 본문은 두 가지를 그 이유로 보인다. 첫째는 그가 그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수고와 고생이 많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했다(시 90:10). 주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1:28). 세상은 수고로운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안식이 있다. 히브리서 4:3, 10-11,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안식의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평안이 넘친 안식의 세계이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세상에서 행한 선행들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행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가치도 없는 누추하고 얼룩지고 보잘것없는 것이며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귀히 보시고 상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6:27, "인자(人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고린도후서 5:8-10,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4-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께서] **앉았**[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利)한**[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가지셨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말하기를] **네**[주님의] **낫을 휘둘러 거두라**[거두소서]**.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익었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시]**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흰 구름 위에서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카로운 낫을 들고 땅의 곡식을 거두는 인자(人子) 같은 이는 구름 타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가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의 때 곧 천국에 들어갈 때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심판의 때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때이다. 가을에 곡식이 다 익으면 추수하여 창고에 들이듯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들이신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였다. 마태복음 3:11-12,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님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천국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요 참된 기쁨의 이유이다.

〔17-20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利)한[날카로운] **낫를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利)한**[날카로운]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말하기를], **네 이(利)한**[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천 6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날카로운 낫으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본다. 그들을 포도송이에 비유한 것은 그들이 마지막 큰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피가 말굴레 즉 말의 목까지 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질 것을 암시한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 마지막 세계 대전, 제3차 세계 대전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그 피는 1,600스다디온에 퍼질 것이다. 1스다디온은 약 184.2미터이므로 1,600스다디온은 약 294.7킬로미터, 즉 약 300킬로미터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의 남북의 길이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땅 전체에 많은 피가 흘려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인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심히 두려운 일이다. 그들이 경험할 전쟁은 매우 참혹할 것이다. 유브라데 강 주위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마지막 세계 대전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

다(계 9:15).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는 심히 두려울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됨을 알아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신앙, 속죄 신앙을 가지고 죽는 것은 복되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그의 일을 쉬기 때문이며(히 5:10) 또 그가 행한 선한 행실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추수한 곡식이 곳간에 저장되듯이 장차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성도에게는 복되고 영광스런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의와 선을 행하며 오히려 담대히 죽음을 사모해야 한다. 히브리서 11:35-38,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있지 않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2:11,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치 아니하였도다." 고린도후서 5:8,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셋째로,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치 않고 섬기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다가 죽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온 세상에 만연한 불경건과 우상숭배, 미움과 음란과 거짓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이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전쟁을 동반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을 얻어야 한다.

15장: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표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아텔레스데 ἐτελέσθη)[성취되리로다].

일곱 천사들이 가진 일곱 재앙들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들보다 더욱 심해진 재앙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성취할 것이다.

〔2-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말하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주님이시여],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사도 요한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하프를 타며 노래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세상에서 대환난 시대를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의 노래하는 모습이라고 본다. 이것은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이 있다고 본다.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미래의 승리를 앞당겨 봄으로써 위로를 받고 더욱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노래 제목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도우셔서 그들을 위협하던 바로의 군대를 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 노래이었다. 물론 신약교회가 부를 노래는 모세의 노래가

아니고 어린양의 노래이지만, 그 둘의 내용은 비슷하다. 신약 성도들이 얻은 구원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주는 각종 시험과 핍박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지만, 그 내용은 비슷하다.

그 노래의 첫 번째 내용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랍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크고 놀라운 일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고,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 얻은 우리로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왕이실 뿐 아니라, 의롭고 진실하신 왕이시다. 그는 의롭고 진실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신다. 그는 불의하며 악하고 거짓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계명대로 사는 의롭고 진실한 성도들을 환난에서 지키시며 구원하신다.

그 노래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만 거룩하시고 그의 의로우신 행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이며 특히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한다.

〔5-8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혹은 '성취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은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하는 광경을 본 후 앞에 보았던 그 천사들을 다시 보았다.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그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그들이 수행하는 심판이 얼마나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나타낸다. 그들은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받았다. 금띠와 금대접도 그들이 수행하는 심판의 위엄성과 영광을 나타낸다.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연기가 가득하였고 일곱 재앙들이 성취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길이 없다. 시간이 너무 늦었고 때가 너무 지났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만 남아 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장차 하나님의 불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불 섞인 유리바다는 마지막 대환난의 세상을 상징한다고 본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들은 그의 진노를 성취할 마지막 재앙들을 가리킨다. 장차 마지막 극심한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둘째로,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할 것이다. 요한복음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5:9,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과 악을 이기며 천국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들과 거룩한 심판은 두려운 사실이지만, 승리자들의 노래하는 광경은 대환난을 통과할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

셋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불경건과 부도덕과 음란의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애써야 한다. 참 믿음과 거룩과 의와 선함은 성도의 정상적 삶의 덕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서 천국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6장: 일곱 대접 재앙

1-11절, 일곱 대접 재앙 (1)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이다. 요한계시록 15:1, 7,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성취되리로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요한계시록 8:13은 마지막 세 재앙에 대해 말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것은 다섯째 나팔 재앙부터 일곱째 나팔 재앙까지를 가리켰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나팔은 황충 재앙으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로 인해 무저갱의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황충들 즉 메뚜기들로 인해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이 다섯 달 동안 고통을 받는 재앙의 환상이었다.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강 부근에서 일어날 세계적 전쟁에 대한 환상으로 그 전쟁에 동원될 군인들의 수가 2만만 곧 2억명이고, 그 전쟁으로 죽는 전사자의 수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다. 그것은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어서 11장에 3년 반 동안 예언할 두 증인에 대한 예언과 거룩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명이 죽는 큰 지진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

또 일곱째 나팔은 붉은 용 곧 마귀와 사탄이 천국에서 땅으로 내어

쫓김(12장)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두 짐승에 대한 환상(13장), 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즉 땅에서 구속(救贖)받은 14만 4천명의 성도들의 환상(14장)과 승리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바다 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환상(15장),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환상(16장)으로 이어졌다.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데[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이 재앙에서 면제됨을 암시한다. 그 재앙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들과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신다.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는 심각한 적조현상을 나타내고 모든 바다 생물들은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해산물의 공급 중단으로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물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몸의 약 70퍼센트는 물이다. 사람들은 식수원들의 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5-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말하기를]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적그리스도와 그 나라 사람들이 의로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그들이 피 같은 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것은 6장에 기록된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께서는 일곱 대접 재앙으로 그 호소에 응답하셨다. 그 재앙으로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참되고 의로우심을 증거할 것이다.

〔8-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500도이며 태양의 중심 온도는 약 1,500만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만일 태양 주위의 가스층이 대폭발을 한다면, 태양의 표면 온도는 급격히 올라갈 것이다.[24] 그러지 않아도, 오늘날 지구는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상 기온 상승으로 인한 극심한 더위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태양의 표면 온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면, 지구의 생명체들은 태양의 열기로 인해 태움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사실,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만 할 수 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회개할 만한 때에 회개해야 한다. 이사야 55: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에 바로 그때 그 곳에서 즉시 회개하기를 힘써야 한다.

〔10-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종기'는 2절의 '헌데'와 같은 단어(헬코스 ἕλκος)다. 짐승의 나라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어두워졌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24)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200만도로 올라간다고 한다. 전선교, 지구의 종말, 어디까지 왔나 (계시록학회, 2001), 320쪽.

깨물었다는 것은 혼란하고 쇠퇴하며 몰락하게 됨을 뜻한다. 사람들의 고통은 독한 종기와 태양 열기로 인한 것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죄는 일시적 쾌락을 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재앙과 큰 고통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고 자기 행위들을 회개치 않았다. 넷째 대접 재앙의 경우와 같이, 그들은 회개치 않을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의로우시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5-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하기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사람의 판단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기 쉬우나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우시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특히 악인들에게 엄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대접 재앙은 땅, 바다, 강과 샘, 해,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다. 특히 땅에 쏟아진 재앙으로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들이다. 마지막 심판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셋째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하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마음이 들 때 즉시 회개해야 한다. 이사야 55:6-7,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몸이 조금 아플 때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회개할 것이 없나 자신을 살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고난을 통해 교훈하신다. 우리는 항상 회개하기를 힘써야 한다.

12-21절, 일곱 대접 재앙 (2)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째 천사는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는데, 그러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9:13 이하의 여섯째 나팔 재앙과 같이, 유프라테스 강은 마지막 세계대전에 관련된 곳으로 예언되어 있다. 강물이 마른 것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것일 것이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아마 이란과 인도와 중국 등의 군대들을 가리킬 것이다. 여하튼,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으로 동서양의 연합군 즉 온 세계의 연합군의 집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문의 예언은 중동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보이는 것 같다.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귀신들]**의 영**[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전능하신 하나님] (KJV, NIV)**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활동은 악령들의 활동이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개구리같이 시끄럽게 떠들어댈 것이나 실상은 거짓되고 더러운 영들임을 암시한다. 그 영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들은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이다. 이 귀신의 영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정치가들을 충동하여 연합군을 형성하게 할 것이다. '이적을 행하여'라는 말은 이 악령들의 활동은 신비적 활동을 동반함을 보인다. 우리는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여러 곳들에서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로 묘사된 그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다. 그 날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전쟁을 가리킬지도 모른다. 19:11, 14, 19,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도적같이’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뜻밖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보인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계시된 대로 바르게 믿고 성경의 교훈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가리킨다. 바른 믿음은 바른 삶으로 나타난다. 구원 얻은 성도는 죄를 떠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주 예수께서는 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다. 성도의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義)의 옷이다.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십자가의 의를 믿는 믿음을 항상 간직해야 한다.

〔16절〕 세 영이[그가]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마게돈 Μαγεδών)[므깃도][25]**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모으시더라].

‘세 영이 모았다’는 원문(쉬네가겐 συνήγαγεν)은 ‘그가 모으셨다’

라고 번역할 수 있고(KJV), 여기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본다.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동방의 왕들을 모으실 것이다. 므깃도는 팔레스틴 북부, 갈릴리 호수 서편으로서 역사상 여러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다. 그 곳은 경건한 유다 왕 요시야가 애굽 군대를 맞아 싸우다가 전사한 곳이며 그 일 후에 유다 왕국이 급속히 몰락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아마겟돈 전쟁의 예언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이는 것 같다. 여섯 째 대접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를 예언한다. 그 전쟁 자체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큰 음녀 곧 바벨론의 멸망과 관계되고 특히 19장에 백마 타고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될 것이라고 본다.

〔17-21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말하기를]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무게]**가 한 달란트**[약 30킬로그램]**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우박 재앙]**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일곱째 천사는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 그때 성전에서부터 '되었다'는 큰 음성이 들렸다. 그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일곱째 대접의 재앙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번개와 뇌성과 음성들을 동반한 큰 지진과 우박의 재앙이다. 그 지진은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될 것이다.

큰 성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 나라의 수도는 그 지진으로 인하여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외의 지구의 모든 성들도 그 지진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라는

---

25) $M^{a\ d}$가 그러함. $M^{b\ c\ e-pt}$ ℵ A는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들을 안 보시는 듯할지라도 다 보시고 아시고 마지막 날에 다 보복하시는 것을 증거한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악의 행위를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보응하신다. 이 마지막 큰 지진으로 인해 섬들과 산들도 부서지고 가라앉고 사라질 것이다. 또 큰 우박이 내릴 것인데, 그 우박의 무게는 한 달란트 즉 약 30㎏이나 될 것이다. 이런 무게의 큰 우박이 떨어지니 그 재난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 그러나 사람들은 역시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훼방하기만 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적그리스도 나라와 배교한 교회를 조심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했다. 그 나라는 온 세계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독재 국가일 것이다. 또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묘사되는데, 그것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했다고 본다. 특히 이 배교한 교회는 이적을 행하는 은사주의 교회이다.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주의 목사들의 나타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성경에 예언된 바이다(마 24:24; 살후 2:9-11). 우리는 배교한 은사주의 목사들과 교회들을 조심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 바른 신앙, 속죄신앙, 옛신앙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역사적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 바른 신앙, 속죄신앙, 옛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성경말씀의 교훈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회개할 만한 때에 열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사람이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 때가 올 것이다. 죄인들은 그런 때가 오기 전에 힘써 회개해야 한다. 이사야 55:6-7,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7장: 큰 음녀

1-6절, 큰 음녀에 대한 환상

〔1-2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자로 증거되었다. '많은 물'은 15절에 증거하기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상징적으로 표현된 그 큰 음녀는 온 세상 나라들과 백성들 위에 활동하는 자이다. 그의 영향력은 세계적이다. 그는 세계적 인물 혹은 단체이다. 특히 그는 세계의 정치가들과 결탁되어 있다. 그의 음행은 영적인, 육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 같다. 그는 사상적으로 참된 종교를 변질시켜 사람의 다양한 사상들과 혼합시키고 도덕적으로 악과 음란과 거짓을 조장하는 자이다. 본문은 온 세계의 정치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상적, 도덕적 음행에 빠질 것을 암시한다.

본장의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그 큰 음녀를 악인들의 세상으로 보는 견해이다.[26] 그러나, 그 음녀는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 자이며(2절), 일곱 산 위에 앉은 자이며(9절),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며(18절),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할 자들임을 생각할 때(18:4), 그는 단순히 악인들의 세상과 동일시되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는 그 큰 음녀를 로마 천주교회로 보는 견해이다.[27] 그 근거

---

26) 헨드릭슨, 조지 래드, 알란 존슨, 박윤선 등의 견해.

27) 벵겔, 알포드, 반즈 등 개신교 저술가들의 대다수.

는, 첫째, 그가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이다. 3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천주교회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세력 집단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은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요한복음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둘째, 천주교회는 기독교회의 배교와 이방종교화(마리아 숭배, 교황제도 등)의 결정체이다. 천주교회는 온 세계를 영적 간음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자이다(2, 5절). 셋째, 천주교회는 역사상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 6절,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순교자들]의 피에 취한지라." 넷째, 로마는 일곱 산 위에 위치하고 있다. 9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 산들의 이름은 팔라티누스, 퀴리날리스, 아벤티누스, 샐리우스, 비미날리스, 에스퀼리누스, 카피톨리누스이다.[28]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로마를 '일곱 언덕'(septem colles) 혹은 '일곱 언덕의 로마'(septicollis Roma)라고 불렀다.[29]

셋째는 그 큰 음녀를 말세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로 보는 견해이다.[30] 그러나 이 견해는 배교한 교회가 왜 일곱 산 위에 위치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장차 로마 천주교회가 모든 개신교회들을 흡수하여 거대한 배교 단체로 진전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둘째와 셋째의 견해는 하나가 될 것이다.

〔3절〕 곧 성령[님]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

28) Matthew Poole, III, 994; 유석근, 밝혀진 적그리스도의 정체, 239.

29) 유석근, 밝혀진 적그리스도의 정체, 240.

30) 포셋, 비더울프, 렌스키, 왈부어드, 김응조 등의 견해.

천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다. 광야는 참 교회가 사탄의 핍박을 피하여 숨은 곳이었다(계 12:6, 14). 거기서 사도 요한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탄 것을 보았다. 여자가 탄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킨다(계 13:1-7). 여자가 그 짐승을 탄 것은 배교한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짐승의 색깔이 붉은 것은 그것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세상적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한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거스르는 세력임을 나타낸다.

〔4절〕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가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은 것이나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것은 다 세상적 부귀와 영광을 나타낸다. 배교하고 타락한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부요하고 사치와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손에 든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배교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에게는 영육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만 가득할 것이다. 그 교회는 신앙적으로 성경의 바른 진리를 저버리고 도덕적으로도 음란하고 부패할 것이다.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본 그 음녀의 이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비밀'이라는 이름은 그의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춰어 있음을 나타낸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별력이 아니고서는 그 정체를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큰 바벨론'이라는 명칭은 역시 로마를 암시한다. 바벨론이 옛날 바벨론 제국의 수도이었듯이, 로마는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이었다. 그것은 큰 바벨론이라고

불릴 만하였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은 그 음녀가 영적으로 모든 우상숭배들과 거짓 사상들의 원천이며 또한 육적으로 모든 음란의 원천이라는 뜻이라고 본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킬 것이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사도 요한은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혹은 순교자들(KJV, NKJ)의 피에 취하여 있음을 보았고 그것을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겼다. 로마 천주교회는 역사상 약 5천만명을 죽였다고 알려지며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 마지막 시대에도, 그 배교한 교회는 많은 진실한 성도들과 충성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과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행위는 그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고 거짓 교회임을 드러낼 뿐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본장에 예언된 음녀는 장차 나타날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고 본다. 장차 로마 천주교회(RCC)는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연합하여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포괄하는 세계적인 배교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배교한 교회인 로마 천주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를 주목해야 하며, 그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또 우리는 배교한 교회들의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을 주의해야 한다. 영적 음행은 자유주의, 우상숭배, 이단종파, 이방종교, 은사주의, 물질만능주의를 받아들임으로 교인들의 사상과 인격이 더러워지는 것을 가리킨다. 육적 음행은 음란과 동성애로 몸을 더럽히는 것을 가리킨다. 세상은 불경건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우리는 불경건과 음란을 멀리하고 거룩해야 한다. 결혼한 이들은 부부의 관계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하고,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몸과 그 순결성을 깨끗하게 지키며, 눈으로 보는 것과 이성 교제나 동성 교제를 조심해야 한다.

7-18절, 큰 음녀가 받을 심판

〔7-12절〕 천사가 가로되[말하기를]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지금] **없으나 장차 무저갱**[깊은 어둠]**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적그리스도를 상징했다고 보이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깊은 어둠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 이 예언이 어느 나라나 인물을 가리키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역사상 적그리스도적 성격을 나타낸 나라들은 종종 있었다. 옛날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강대한 나라이었다. 헬라 시대에 수리아의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적그리스도적 인물이었다(단 8:9).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도미시안 황제(주후 81-96년)도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서운 핍박자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아직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없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장차 깊은 어둠으로부터 올라올 나라로 묘사되었다. 이 나라는 마귀의 권세를 가진 폭력적 독재자나 정권일 것이다.

본문은 그 짐승의 일곱 머리가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설명해 준다. 이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 같다. 예로부터 로마는 '일곱 언덕' 혹은 '일곱 언덕의 로마'라고 불리었다. 만일 그 나라가 로마라면, 이 예언은 배교한 교회가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교회일 것이며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그 곳을 중심으로 삼고 활동할 것이라는 예언일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중세시대처럼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와 로마 천주교회는 또다시 온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일곱 왕이 일곱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 일곱 나라들 중 이미 망한 다섯은 아마 애굽 나라, 앗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메대 바사 나라, 헬라 나라 등 다섯 나라이며, 지금 있는 하나는 로마 제국을 말하며, 아직 오지 않은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세계적인 강력한 독재정권일 것이다. 본문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이 짐승은 여덟째 나라이며 그것은 그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말한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나라를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오늘날 유럽연합(EU)이나 러시아, 중국, 이슬람 세계 등을 주목한다. 열 뿔은 거기에 속한 많은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열'(10)은 상징적 숫자일 것이다.

〔13-14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은 만주의 주[주님]**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은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싸울 것이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싸우실 마지막 전쟁이다. 이것은 아마 아마겟돈 전쟁과도 연관될 것이다(계 16:15). 그 전쟁에서 어린양께서는 이기실 것이다. 그는 만주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어린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주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다.

〔15-18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음녀 즉 배교한 교회는 마침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의해 망할 것이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 음행으로 간주하시고 징벌하신다. 야고보서 4: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 그 음녀와 같은 타락한, 배교한 교회를 치실 것이다. 그 배교한 교회는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배교한 교회의 멸망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지도자들이 그 배교한 교회를 미워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그의 뜻을 이룰 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배교한 교회는 망할 것이다. 그 교회는 물질적 부요와 세상 권세를 누릴 것이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얼마 동안 그 배교한 교회와 친근하고 그 교회를 사용하다가 마침내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다. 그러므로 참 성도들은 배교한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진실한 성도들은 이길 것이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배교한 교회의 미혹과 핍박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함께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 신앙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며 신구약성경의 모든 말씀과 교훈을 다 믿고 또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18장: 바벨론의 멸망

1-8절, 바벨론의 멸망과 그 이유

〔1-3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취하였으며](전통사본)(KJV, NASB)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부유하였음이라] **하더라.**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는 앞장에서 말한 큰 음녀이며 13장에 예언된 두 짐승 중 두 번째 짐승과 동일하다고 본다. 그것은 17:5에는 큰 바벨론으로 표현되었다. 그 배교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실히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의 이유는 그 교회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집합소, 즉 모든 형식적 교회들과 종교들을 통합할 것이기 때문이며, 또 세상의 통지자들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고 사업자들로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해 부유하게 했기 때문이다. '음행'이란 영적인, 육적인 뜻을 다 가진다고 본다. 그 배교한 교회는 거짓된 사상들과 이념들과 종교들로, 즉 신학적 포용주의와 종교적 다원주의로 온 세상을 속이고 혼란케 할 것이다. 또 그 교회는 거룩과 의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기는커녕 음란과 부도덕을 조장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사치'라는 원어(스트레노스 στρῆνος)는 '사치'라는 뜻과 함께 '음탕함'이라는 뜻도 있다(BDAG, NASB).

〔4-8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께서는]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기억하심이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께서는]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배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그 배교의 죄와 그 영적인, 육적인 음행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 배교한 교회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 배교한 교회와 정신적으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적으로도 분리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그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으실 것이다. 그는 그 교회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사치한 만큼 그에게 고난과 애통으로 갚으시며 그 교회가 자신을 여왕으로 높이고 자만한 만큼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재앙들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를 사르실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u>첫째로, 우리는 바벨론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u>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는 모든 형식적 교회들, 이단 종파들, 심지어 이방 종교들을 통합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특징인 포용주의와 다원주의의 교회이다. 또 7절 하반절,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

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배교한 교회는 교만과 음란과 사치와 쾌락의 교회일 것이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로마 천주교회에서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방종교들의 풍습들을 받아들여왔다. 그 대표적 예가 마리아 숭배이다. 또 그 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고문하고 학살하였고 교황청은 오랫동안 매우 음란했다.[31] 또 오늘날 개신교회들도 매우 부패하고 해이해졌다. 많은 교회들이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고 있고 대교단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천주교회와 이방 종교들도 포용하려 하고 있다. 또 오늘날 다수의 교회들은 낙태와 동성애를 용납하고 심지어 동성애 목사들이 있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을 주례하고 있다.[32] 이것은 본문에 예언된 바로 이 바벨론, 바로 이 음녀 교회의 모습이다.

둘째로, 바벨론, 즉 배교한 교회는 멸망할 것이다.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6절,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한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배교한 교회 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바른 교회에 속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켜야 하고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디도서 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요한이서 10-11,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

31) 김효성, 천주교회 비평, 2판 (옛신앙, 2019), 60-76쪽.

32)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5판 (옛신앙, 2019), 7-41, 62-68, 168-177쪽.

9-24절, 바벨론 멸망의 모습

〔9-14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말하기를]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그릇들]**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놋쇠, 청동]**와 철과 옥석**[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그릇들]**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배교한 교회라고 보이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과 음행을 하고 그로 인해 부요와 사치를 누린 세상의 정치가들은 그 성이 불타며 망하는 광경을 보고 울며 가슴을 치며 그 멸망을 무서워할 것이다. 그들은 멀리 서서 부르짖기를, 크고 견고한 그 성에 한 순간에 심판이 이르렀고 그 성이 재앙과 화를 당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 성의 멸망은 한 순간에, 돌연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10, 17, 19절).

또 본문은 큰 음녀 곧 바벨론이 부유한 세상 나라들과 연합되어 있음을 보인다. 전 세계의 상인들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들이 없을 것이므로 그 성의 멸망을 애통할 것이다. 그들이 취급했던 물품들은, 첫째로 금, 은, 보석, 진주 등의 귀금속들이요, 둘째로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등의 옷감들이요, 셋째로 각종 향목, 상아, 값진 나무, 놋쇠, 철, 대리석 등으로 만든 고급 그릇들이요, 또 넷째로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향 등 향품들이요, 다섯째로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밀 등의 식품들이요, 여섯째로 소, 양, 말 등의 가축들과 수레들이요, 일곱째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었다. 사람들이 한때 즐겼

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여 없어질 것이다.

〔15-19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致富)한[부자가 되었던] **이 상품의 상고**[상인]**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船人)**[뱃사람]**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말하기를]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말하기를]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부자가 되었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큰 음녀로 인해 부자가 되었던 무역업자들과 선장들과 뱃사람들은 그 성의 멸망을 인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할 것이다. 그들은 그 큰 성의 불붙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의 이전의 부귀와 영광이 이처럼 한 순간에 망하는 것을 인해 무서워하며 울며 애통할 것이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께서] **너희를 신원(伸寃)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큰 음녀의 멸망을 인해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그 큰 음녀, 곧 배교한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성도들을 많이 죽였으므로(17:6; 18:24)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억울한 피흘림을 이와 같이 갚으실 것이다.

〔21-24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거문고**[하프]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장인,기술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취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상인]**들은 땅의 왕족들**[대인들]**이라. 네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큰 음녀, 그 배교한 교회의 멸망은 영원할 것이다. 다시는 그것이 누리던 세상적 즐거움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시는 거기서 음악소리도, 기술자도, 맷돌소리도, 등불도,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큰 음녀, 그 배교한 교회로 인해 만국이 미혹을 받았었고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보였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끝날이 왔고 다시는 그 교회의 풍요롭고 영광스런 옛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 세상의 영광은 한 순간에 끝날 것이다. 바벨론 곧 배교한 교회라고 생각되는 이 성의 심판과 멸망은 '한 순간에' 올 것이다. 10절,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라." 17절, "그러한 부(富)가 한 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해 부자가 되었더니 한 순간에 망했도다." 이 세상과 세상의 부귀와 영광은 헛되다. 심판받을 배교한 교회들도 그러하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심으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과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1:15-16,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음행인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하고, 또 육적인 음행도 멀리해야 한다. 우리는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19장: 백마 탄 자의 심판

1-10절, 하늘의 찬송

〔1-5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능력과 영광](전통사본)**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말하기를] **할렐루야 하더니 그**[그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말하기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늘에 허다한 무리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을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찬송한다. 사탄과 적그리스도 나라와 배교의 활동은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 말세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들은 힘을 합쳐 참된 성도들을 심히 핍박할 것이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돈과 육신의 쾌락과 음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뿐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순교까지도 견뎌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음행으로 세상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의 피를 많이 흘린 그 음녀, 즉 그 배교한 교회에게 공의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이든지 간에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의 구원을 찬송해야 한다.

〔6-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말하기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께서]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가모스 γάμος)[혼인 잔치]**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디카이오마타 δικαιώματα)[의(義)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이며 그것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표현되었다. 혼인은 연합을 가리킨다. 신부는 성도들을 가리키며 어린양의 혼인 잔치는 부활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누릴 것을 가리킨다. 구원 얻은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고전 12:27). 그러나 그 연합은 천국에서 완전케 될 것이다. 그것은 구원의 영광스러운 완성, 즉 영화(榮化)의 상태에서 누릴 연합이다.

신부가 입게 될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옷이다(8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이다.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말했다(빌 3: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롬 10:4). 사람의 행위의 의는 불완전하다. 이사야는 사람의 의가 더러운 옷 즉 누더기 옷과 같다고 말했다(사 64:6). 오직 예수께서 주신 의만이 완전하고 영광스럽다. 그러나 성도는 그 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비록 보잘것없어도,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위한 당연한 준비가 될 것이다.

성도들이 누릴 천국의 영광을 혼인 잔치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참된 만족을 주는 사건임을 나타낸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만족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만족보다 더 크다. 그것은 완전한 기쁨이다.

〔9-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예수께 대한] **증거는 대언(代言)의 영이라**[영임이라] **하더라.**

요한은 너무 감격하여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였다. 그때 그 천사는 자기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했다.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천사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영에 의한 대언(代言) 사역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이나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즉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배교한 교회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과 화답하여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공의의 심판과 은혜의 구원을 찬송해야 한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 즉 성도가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슬픔과 질병과 고통도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천국의 그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혼인 잔치에 참여할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과 의를 간직하고 그 거룩과 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마땅한 일이다.

11-21절, 주께서 백마 타고 오심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와 탄 자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본다. 흰색은 성결함을 나타내고 말은 전쟁을 수행하는 기동력과 힘을 나타낸다. 심판하러 오시는 주께서는 성결하신 분이시며 그의 심판은 신속하고 힘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다. 주께서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인자(人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代贖物)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20:28). 그는 그 일을 충성되이 완수하셨다. 또 그는 진실하신 자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세상의 지도자들도 그러하다. 말쟁이들과 허풍쟁이들이 많다. 그러나 주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허풍이 없으시고 사람을 속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또 주께서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자이시다. 그의 심판은 공의로울 것이다. 그는 법과 원칙대로, 네 편 내 편이 없이, 편벽됨 없이, 치우침 없이, 공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자이시다. 그가 싸우시며 심판하실 대상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다. 그는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12-14절〕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여러 이름들이 있고](전통본문)[33]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불꽃같은 눈은 그의 신적 지식과 통찰력을 가리킨다. 또 그의 머리

---

33) $M^{a\text{-}pt\ b\ c\ e\text{-}pt}$가 그러함.

의 많은 면류관은 그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상징한다. 그에게는 여러 이름들, 즉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충성, 진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등의 이름들이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한 이름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그의 신성(神性)의 이름을 나타낼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요일 5:20) 크신 하나님이시다(딛 2:1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을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신비에 감취어 있다.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그것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사역을 가리키거나 혹은 원수들을 심판할 때 그들의 피가 그의 옷에 묻을 것을 상징할 것이다(사 63:1-3). 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셨던(원문) 말씀"이라고 증거했고(요 1:1), 또 "태초부터 계셨던(원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거했다(요일 1:1).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는 선한 천사들을 가리킨다. 주께서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마 25:31).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것은 그들의 성결함과 기동력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심판을 도울 모든 천사들은 다 성결하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15-16〕 그의 입에서 이(利)한[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鐵杖)**[쇠지팡이]**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주님]**라 하였더라.**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것은 그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의 말씀은 심판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다. 그는 두려운 말씀으로 만국을 치실 것이다. 또 그는 친히 쇠지팡이로 저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를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

실 것이다. 그는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 원수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그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다. 그는 분명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계 17:14). 그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크신 왕이시요 모든 주인들의 참 주인이시다.

〔17-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천사가 해에 선 것은 온 세계의 새들이 볼 수 있도록 외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나님의 이 큰 잔치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와 대조된다. 본문의 큰 잔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이다. 그것은 새들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것은 예언된 큰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처참하게 죽을 것을 의미한다.

〔19-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연합군은 재림의 주님과 더불어 싸우려 하다가 패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혀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울 것이다. 적그리스도적 국가의 지도자들과 배교적 교회의 지도자들은 맨 먼저 지옥에 던지울 것이다. 산 채로 던지운다는 말은 그들이 악인의 부활체를 입은 후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을 가리킬 것이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8에서,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고 예언하였다. 또 그 전쟁에 참여한

나머지 사람들도 다 죽어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결하고 위엄 있는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고백한다. 그는 충성되고 진실하신 주님이시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는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그의 눈은 불꽃같은 깊고 예리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셨다. 그의 심판은 참으로 두려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는 능력의 손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그를 따라 내려와 그의 심판을 도울 것이다.

둘째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결국 잡혀 산 채로 지옥에 던지울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켰다. 특히 둘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성경 자체가 거짓 선지자라고 해석하였다. 16:13,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9: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20:10,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배교한 교회는 일시적으로 번영하고 사치할 것이지만,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유황불 붙는 못, 즉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구주이시다. 요한복음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며 지옥 불못을 피하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의 교훈대로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가는 것이다.

20장: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

1-6절, 천년왕국

본문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천년왕국을 신약교회시대로 본다(무천년설). 둘째는 천년왕국을 교회시대 후기의 복음의 황금시대로 본다(후천년설). 셋째는 주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고 본다(전천년설). 요한계시록 20:1-10은 첫 번째 견해(무천년설)나 두 번째 견해(후천년설)로는 해석하기 어렵고 세 번째 견해(전천년설)로 가장 잘 이해된다고 보며, 또 천년왕국의 성격은 신약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1-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무저갱(無底坑)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으로 사탄과 악령들의 감금 장소로 생각된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세를 가지고 용을 잡았다. '용'이라는 원어(드라콘 δράκων)는 '큰 뱀'을 가리킨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했던 그 뱀 곧 마귀요 사탄이다. '마귀'라는 원어(디아볼로스 διάβολος)는 '훼방자, 참소자'라는 뜻이며, '사단'이라는 원어(사타나스 Σατανᾶς)는 '원수, 대적자'라는 뜻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인류를 범죄케 하고 타락시킨 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훼방하고 참소하는 자요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이며 대적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잡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셨다. 마귀는 천년 동안 세상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감금은 천년 동안이다. 천년이 차면 사탄은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마귀의 결박과 감금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효력을 가리킨다고 본다(무천년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감금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치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사탄의 잠시 놓임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효력이 잠시라도 무효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의 천년 동안의 감금을 신약시대 전체로 보는 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그 이상의 뜻, 곧 문자 그대로 사탄이 결박되고 감금되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폐하신 후에 사탄을 천년 동안 감금시키실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문에 가장 맞는 해석일 것이다.

〔4-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사도 요한은 몇 가지를 보았다. 우선, 그는 보좌들을 보았다. 보좌는 재판하는 권세를 상징한다. 사람들이 그 보좌들에 앉아 있었다. 거기 앉은 자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원문에는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아마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라는 원어(크리마 κρίμα)는 보통은 '심판'이라고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심판하는 권세'(NIV)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것은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물론 그들도 심판의 권세를 받고 보좌들에 앉은 자들 중에 포함될 것이다. 또 사도 요한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던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순교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진실한 성도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본다. 적그리스도들의 활동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거쳐 신약교회의 역사상 항상 있어 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더욱 절정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들의 세력에 복종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도 교회 역사상 항상 있어 왔고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은 앞에 언급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음절에 언급된 ‘첫째 부활’이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만일 앞에 언급된 자들이 순교자들만을 묘사한 것이라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님 믿는 나머지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지만, 앞에 언급된 자들이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과 악인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즉 이 구절은 의인들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을 구별한 것이라고 본다. 고린도전서 15:23-24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본문의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영혼의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본다. ‘부활’이

라는 원어(아나스타시스 ἀνάστασις)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12, 13, 21, 42절). 그 말은 성경에서 중생(거듭남)을 위해서는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복되다. 그들은 몸의 구속(救贖), 즉 몸의 영광스런 부활을 받은 자들이므로 완전히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다. 둘째 사망 곧 지옥 형벌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계 5:10)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 천년은 사탄이 결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사탄의 미혹이 없고 불법이 상당히 억제되고 풍성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은 복된 시대가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장차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감금하실 것이다.

둘째로, 성도들은 복된 부활을 할 것이다. 그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것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가지는 부활이며(고전 15:42-44), 영생의 부활이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것이다.

셋째로, 장차 주 예수님의 재림 후 부활한 성도들은 그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또 그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 . .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고린도전서 6: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2:11-12,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7-15절, 마지막 심판

〔7-8절〕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의 감금 기간이 다하면 사탄은 그 무저갱의 감옥에서 놓여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질 것이다. 사탄은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천년 동안의 긴 감금 기간 동안 회개하거나 반성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할 결심을 하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거대한 일을 도모할 것이다. 그것은 역사상 전무한 일이다.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백성을 미혹하는 일이다.

본문은 지구상의 모든 백성을 '곡과 마곡'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 같다. 곡과 마곡은 구약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인용한 표현일 것이다. 거기에서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로 예언되어 있다. 마지막 시대에 지구상의 사람들도 곡과 마곡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천년왕국 중에도 회개치 않은 자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보인다.

사탄은 그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전쟁에 참여케 할 것이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특권 계급처럼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통치해왔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의 민주적 통치를 원한다. 자, 우리가 단합하여 저들을 쳐부수고 영구적인 자유를 되찾자." 그러나 사탄의 이 말은 순전한 속임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전쟁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기는커녕 자신과 인류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9-10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

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도들의 진'은 부활한 성도들이 거주한 곳을 가리키고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 것 같다. 재림하신 주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며 부활한 성도들도 한 곳에 모여 사는 것 같다. 성도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 놓여난 후 세상을 미혹하자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의 통치권을 부정하며 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 세계적인 반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형벌의 때이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소멸하시고 마귀를 처단하실 것이다.

어떤 이들은(무천년설과 후천년설) 사탄의 미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 반란이 대체로 주의 재림 전에 있을 기독교회를 향한 세상의 대 핍박을 가리키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멸망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맥상 대 환난(6-19장)과 그 후의 천년왕국 예언에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곡과 마곡의 연합군을 하늘의 불로 소멸하신 후 그들을 미혹한 마귀를 잡아 불과 유황 못, 즉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거기에는 이미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고 거짓 선지자가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해석했었다. 그러나 본문에 그들이 지옥불에 던지운다는 표현은 그들이 어떤 인물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짐승은 적그리스도 나라의 우두머리이며 거짓 선지자는 배교한 교회의 우두머리일 것이다. 이제 마귀 즉 사탄은 그들이 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인류 역사 6천년간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했던 사탄의 마지막이며 형벌이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마지막 크고 흰 심판 보좌를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큰 심판 보좌이다. 그 심판 보좌가 흰 보좌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하고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그는 신약성경에 마지막 심판주로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다. 요한복음 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도행전 10:42,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땅과 하늘은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고 심판받을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여 서게 됨을 가리킬 것이다. 의인들은 천년왕국 전에 부활했으므로 이때는 악인들이 부활할 것이다.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다 부활하여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공평한 처분이다. 그는 사람을 피조물 중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만큼 마지막 날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다. 이것은 정당한 처분이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바르고 정당한 처분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자들로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사도 요한은 심판대 앞에서 여러 권의 책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다 펴져 있었다. 여기에 언급된 '책들'은 사람들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들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

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행위록들과 구별되는 다른 한 책은 생명책이라고 불리었다. 그것은 구원 얻은 자들의 이름들을 기록한 책이 분명하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눅 10:20).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지옥 형벌을 피할 것이다(계 20:15).

〔13-15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다.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모든 무덤들이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다. 온 세상에서 죽은 자들의 원소는 다시 결합되어 부활할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 주 예수께서는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주이시다(딤후 4:1). 모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해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서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 받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결코 핑계하거나 불평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공의롭고 공정할 것이다.

몸의 죽음과 무덤, 또 악인이 부활 전까지 머물며 고통 받던 음부 곧 지옥도 최종적 지옥인 불못에 던지우는 것으로 표현된다. 불못은 부활 후에 악인들이 들어갈 형벌의 장소이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사망이다.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 곧 첫째 사망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사람의 일들 중 장례식이 가장 슬픔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렵고 슬픈 일이 둘째 사망의 일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보다 이 둘째 사망으로 인해 그의 행복

과 불행이 나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다(마 10:28).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탄이 아무리 무섭고 강한 원수일지라도, 우리는 사탄이 결국 지옥에 던지울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것이 사탄이 받을 최후의 심판과 형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그에게 굴복하지 말고 당당히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 야고보서 4:7,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둘째로, 우리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기를 힘쓸 것이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후 5:9-10).

셋째로, 우리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주 예수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된다. 그 믿음은 성령님의 활동으로 또 성경말씀을 통해 생기며 견고해진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요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장차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니지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부자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확실히 행복자이다.

21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1-8절, 천국과 지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이다. 베드로후서 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현재의 하늘과 땅은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 속에도 갖가지 불행한 요소들이 있다. 아름다운 하늘은 때때로 폭우와 폭설을 내린다. 각가지 먹을 것을 주는 땅은 때때로 화산과 지진으로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무서운 전염병들이 돌기도 한다. 바다는 때때로 사람들을 삼킨다. 이것들은 다 사람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의 결과들이다(창 3:17).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저주받은 죄악된 세계가 지나가고 의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새 세계가 올 것이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성이 세워질 것이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린다. 그 성은 죄악과 불결이 없는 거룩한 성이다. 그것은 현재의 세상 도시들과 전혀 다를 것이다. 요한계시록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성이다. 11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8, 19, 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 . . .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죄는 사람과 세상을 추하게 만들지만, 의는 아름답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은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도시일 것이다.

〔3-4절〕 내가 들으니 보좌[하늘](전통사본)**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께서는]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 세계 곧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주관자이시며 관리자이시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 곳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다.

천국은 어떤 불행한 일도 없는 곳이다. 거기에는 모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천국은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를 것이다. 이 세상에는 병자들이 많고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갖가지로 고통 당하는 자들이 많다.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도 많다. 이혼으로 파탄한 가정들도 많고 독거노인들도 많고 소년 소녀 가장들도 많다. 죽는 사람들이 끊임없고 공동묘지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새 세계에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5-7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만물을 회복시키실 자는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세상은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되고 저주받은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말씀은 이 만물의 회복이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한다. 만물의 회복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며 그의 구원 활동의 목표이다. 만유의 회복을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 진행해오셨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다. 그것이 구원이다. 또 그는 이기는 자들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며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기는 자'는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핍박을 이기는 자를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요한일서 5:4,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경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세상은 악하고 마귀의 시험은 크고 우리는 약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자신의 죄성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기는 길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천국에는 악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죄인은 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핍박과 죽음을 겁내는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마술사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악인들은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영원한 지옥 불못은 사탄과 악인들의 형벌의 장소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의 의(義)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지만 죄와 의는 정반대이며 죄 가운데 머무는 자는 지옥에 합당한 자이므로, 구원 얻고 천국 백성된 우리는 범죄치 말아야 한다. 죄는 지옥 백성의 행위이며 천국 백성의 행위가 아니므로, 우리는 결코 범죄치 말아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만물의 회복의 때를 사모해야 한다. 만물의 회복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이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질 때를 사모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런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 거기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을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과 그가 약속하신 천국에 두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몸의 죄성을 이기고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야 한다. 주께서는 요한계시록 2-3장의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과 영생의 확실한 복과 특권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救贖)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은 이길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결코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 본문 8절은 지옥에 던지울 죄인들을 열거하였다. 우리는 미움과 살인, 음란과 간음, 우상숭배, 거짓말 등 지옥에 던지울 죄인들의 모든 악을 버려야 한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거룩과 의와 선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벧후 1:11).

9-27절, 새 예루살렘 성

〔9-11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님]**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는 구원 얻은 성도들 곧 교회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입은 상태에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교인들을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처녀에 비유하였고(고후 11:2),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교하면서 한 몸 됨을 강조하였다(엡 5:32).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 중에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보았다. 이것은 어린양의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성이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성임을 나타낸다. 히브리서 11:10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 건축자이시요 만드신 이인,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어떤 실제 도시로 보지만, 아마 단순히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성은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된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영화롭게 된 상태는 죄 없는 상태이며 물론 그들이 들어갈 천국도 죄 없는 곳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을 것이다. 그것은 성도들의 최종 상태가 심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것이다.

〔12-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열두 문에 있는 열두 천사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다. 그 성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성이다. 또 열두 문에는 각각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전체의 수를 상징할 것이다(계 7:4-8).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열두 문에 열두 지파 이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구원 얻음을 나타낼 것이다. 동서남북에 세 개씩의 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 세계로부터 들어옴을 상징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 얻을 것이며 그들만 구원 얻을 것이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다.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지만(고전 3:11), 그는 그의 사도들을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했다(엡 2:20). 교회는 사도들이 전파하고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

〔15-17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長廣)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척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금 갈대로 척량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같았다. 그 길이는 12,000스다디온(12x1000스다디온)이다. 1스다디온은 약 184미터이며 12,000스다디온은 약 2,210킬로미터이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함경북도 북쪽 끝에서 경상남도 남쪽 끝까지 거리의 2배가 조금 넘는다. 그러나 12는 '완전'을 나타내는 수이며 1000은 '충만'을 나타내는 수라고 보고, 12,000스다디온은 14만 4천처럼(계 7:4-9)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은 완전충만한 수의 영혼들을 상징할 것이다. 그 성곽의 높이는 144규빗(약 65미터)이지만, 그것도 12 곱하기 12규빗, 즉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완전한 높이라는 뜻일 것이다.

〔18-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紫晶)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귀하고 영광스럽다. 그것은 성도들이 장차 가질 영광을 보인다. 그것은 성도들의 부활체의 영광이며 천국의 영광이다. 특히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 성곽의 기초석 위에는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14절). 그것은 교회의 기초가 된 사도들이 각각 받은 은혜가 달랐지만, 귀한 하나님의 보배들이었음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보석과 같이 귀히 여기신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의복의 어깨 견대의 두 호마노 보석과 같고(출 28:9-12) 가슴의 판결흉패에 네 줄로 물린 열두 보석과 같다(출 28:17-21). 그것들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들이 새겨졌었다. 또 그들은 주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값진 보화나,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44-46절).

〔22-27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께서]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췸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양이[께서]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없는 것들이 있었다. 첫째로,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양께서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림자와 모형이었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치 않다. 둘째로,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 그것들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취고 어린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영광은 해와 달의 비침보다 더 클 것이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셋째로, 밤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을 항상 대낮같이 밝게 만들 것이며 따라서 성문들을 닫는 일도 없을 것이다. 넷째로, 죄인들이 없다. 모든 더러운 것과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거기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회개치 않은 자들은 아무도 그 곳에 들어올 수 없으며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씻음받고 중생한 자들만 그 곳에 들어올 수 있다. 속죄신앙은 그 성에 들어가는 출입증과 같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사도적 교훈을 굳게 지켜야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했고(엡 2:20), 또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전해들은 바)을 지키라”고 말했다(살후 2:15).

둘째로,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장차 입을 부활체의 영광이요 우리가 누릴 천국의 영광이다(롬 8:30; 빌 3:21).

셋째로,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을 믿고 성경의 교훈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믿고 소망하며 그 교훈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22장: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1-7절, 새 예루살렘 성의 복됨

〔1-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앞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대해 증거한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성의 복됨에 대해 증거한다.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양의 신부로 묘사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1:9-10,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님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렇다면 그 성은 실제의 성이 아니고 어린양의 신부 즉 신약교회를 상징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 성의 영광, 크기, 그 거주민들에 대한 앞장의 묘사나 그 성의 복됨에 대한 본장의 묘사가 그러하다고 본다.

특히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 강은 수정같이 맑은 강이다. 그것은 더러운 쓰레기와 오물과 오폐수로 더럽혀져서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이 세상의 강들과는 다르다. 그것이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강물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강물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에스겔 47장에 자세히 묘사된 회복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과 비슷하다. 만국을 회복시키는 강물로 묘사된 그 강은 세계 복음화를 보인 것이라고 본다.

본문의 생명수 강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나타낸다. 요한복음 4:14에 보면, 주 예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37-39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고로 성령께서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증거하였다.

그 생명수의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힐 것이다. 그것들은 천국 백성에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생명력을 북돋울 것이다.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에 생명력과 활기를 주는 데 사용될 것이다. 에스겔 47장의 이스라엘 회복의 환상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다.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과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일을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과일은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천국에는 생명의 쇠약함과 쇠잔함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병도 병원도 약국도 없을 것이다. 천국은 항상 건강과 활기가 넘치는 곳일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3-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께서]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저주받은 세상이다. 창세기 3:17-18,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땅의 저주는 거두어졌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양을 섬기며 그에게 예배드리고 그의 얼굴을 뵈옵고 그와 교제할 것이다. 또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소속을 나타낸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또 거기에는 밤이나 어두움이 없고 등불이나 전깃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온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 같은 신분과 특권을 가질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신약 성도들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다(벧전 2:9). 천국은 신정(神政) 국가이지만, 또한 매우 민주적인 나라일 것이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사람은 다시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6-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께서] **그의 종들에게 결코**[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 곧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증거되었다.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질 나라이다. 또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며 요한계시록도 그 한 부분이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사건들을 예언하며 기록한 것이다.

또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도 말씀한 내용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대환난과 주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천재지변들이 있고 세계적 전쟁들이 있고 적그리스도 즉 세상을 지배하는 무서운 독재국가나 통치자와, 거짓 선지자 즉 배교한 세계적 교회나 종교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패하여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이며 사탄도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지막 대환난 중에도 참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주님의 교훈의 요지이다. 우리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장차 복된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영화된 교회이다. 우리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통해 풍성한 영생의 생명을 누릴 것이며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뵈올 것이다. 또 특별히 우리는 천국에서 왕 같은 신분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법을 순종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말씀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성경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장차 극심한 대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시대가 올 것이지만, 우리는 불신앙과 배교와 음란과 온갖 죄악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말고 속죄 신앙과 천국 소망 가지고 끝까지 참고 성경의 교훈대로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8-15절, 행한 대로 받을 것

〔8-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 사도일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 천사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은 그와 그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곧 우리 모두와 함께 된 종이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였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게 주님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이며 성경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들일 뿐이다.

〔10-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천사는 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천사가 말하는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이며 영광의 천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이다. 그때가 가까우므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표현들이 많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덮어두어야 할 책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목사들이 성심으로 읽고 묵상하고 강론해야 할 내용이며 모든 성도들도 읽고 듣고 깨닫고 장차 올 대 환난과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두 번 권면했으면 충분할 것이다.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권면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좇아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 불의를 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더 이상 권면을 받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그대로 살면 된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힘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것이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12-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보응]**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께서는 그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행위의 보응에 대해 말씀하셨다. 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 악을 행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의롭고 선한 행위는 신앙의 열매로 중요하다. 로마서 2:6-8,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 얻어 의와 거룩을 행하다가 영생에 들어간다. 로마서 6:22,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다. 처음과 시작은 창조를 가리키고 나중과 끝은 종말과 심판을 가리킬 것이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또 처음과 끝이 되신 그는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되시며 해결자와 정리자가 되신다.

〔14-15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전통본문)[34]**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의와 사랑을 명하신다. 의는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며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할 것이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이를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을 존경하고 남의 부족과 실수를 용서하고 남에 대해 너그러움과 이해심과 관용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것이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다. 의와 사랑을 실행하는 자들은 참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러나 의와 사랑이 없는 자들, 죄 가운데 사는 자들, 예를 들어, 개들 즉 부도덕하고 남에게 해를 주는 자들, 술객들 즉 악한 신비술을 쓰는 자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성 밖에 있다는 말은 천국에서 제외된다는 뜻이고 결국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뜻이다. 인류의 최종적 상태는 천국과 지옥, 둘뿐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고 두려워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의 계명들의 내용은 경건과 거룩과 의와 선과 사랑과 진실 등이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거룩과 의와 선과 사랑과 진실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살인, 간음, 거짓말 등 사람의 도덕적 죄악들에 대해 엄하게 벌하실 것이다. 죄인들은 결코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죄를 멀리해야 한다.

---

34) Byz cop^{bo} (arm) 키푸리안 터툴리안 등이 그러함.

16-21절,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위해 그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기록하게 하신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참 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거하셨다.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그의 신성(神性)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는 만물의 근원이시다. 골로새서 1:16,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뿌리이시며 또 다윗의 뿌리이시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의 인성(人性)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셨고 구약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

그는 또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증거하셨다. 그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올 때 떠오르는 새벽별처럼 그의 대속 사역으로 죄악된 인류 역사를 끝마치고 천국의 새 시대를 여셨다.

〔17절〕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오시옵소서]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오시옵소서라고]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자는]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님과 신부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 중에 계시는 성령님을 가리킨다. 처음에 언급된 '오라'는 말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해하는 대로, 앞뒤의 문맥으로 볼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7, 12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대답으로 이해된다. 즉 성령님

과 신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화답한 것이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나 그에 대한 화답의 말을 듣는 자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옵소서"라고 화답의 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얻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요한복음 6:35,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 . .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18-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가감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신명기 4: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선지자들이 쓴 역사서들과 선지서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은 죄와 그 결과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증거하였다.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들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복됨을 증거하였다(시 1:2; 전 12:13).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무엇을 첨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증거하고 적용한 것이었다. 이제 예수께서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오셨다(마 1:1).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예표와 예언의 성취이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감치 말라는 강조와 경고가 다시 기록되어 있다. 이 경고는 매우 엄숙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주 예수께서 기록케 하신 이 책의 내용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더하여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무

엇을 빼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경고는 이 책의 절대적 권위를 증거하며 이 책이 종말 예언에 있어서 충족한 계시의 책임을 증거한다. 더 이상 이 책에 무엇을 첨가할 내용들이 없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언에 있어서 최종적 권위를 가진 책이다.

그러나 본문의 경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와 신구약성경 전체에도 적용될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에 대한 증거와 교훈이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칙이다.

〔20-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나이 ναί)[참으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님이시여], [참으로](나이 ναί)(전통사본)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참으로 속히 오리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참으로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였다. '참으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함을 나타낸다. 주께서는 참으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참으로 오시기를 소원했다. 요한계시록 1:7,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나이 ναί). 아멘."

주께서는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나타낸다. 베드로후서 3:8-10,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전통본문)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

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불타버리리라(전통사본)."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은 모든 신약 성도들의 큰 소망이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 주 예수님을 맞는 자들은 영광스런 몸으로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뿌리이시며 그의 자손이시고 광명한 새벽별이시다.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그의 신성(神性)을 가리키며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의 인성(人性)을 가리킨다. 또 예수께서 새벽별이시라는 말은 그가 어두운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밝히시는 자이심을 가리킨다.

둘째로, 주 예수께서는 그에게 오는 자들 곧 그를 진실히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 그것이 구원이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7:37-38,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셋째로, 주 예수께서는 참으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성경에 계시된 종말 예언들의 절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절정적 사건이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참으로 오시옵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우리는 성경을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을 가감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칙,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회에 있어서도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칙이다.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B.A.).
총신대학 신학연구원[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v.).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졸업 (Th.M. in N.T.).
미국, Bob Jones University 대학원 졸업 (Ph.D. in Theology).
계약신학대학원 교수 역임, 합정동교회 담임목사.
〔역서〕 J. 그레셤 메이천, 신약개론, 신앙이란 무엇인가? 등 다수.
〔저서〕 구약성경강해 1, 2, 신약성경강해, 조직신학, 기독교교리개요, 기독교 윤리, 현대교회문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교회연합운동 비평, 복음주의 비평, 현대교회문제자료집, 기독교신앙입문, 천주교회비평 등.

요한계시록 강해

2003년 1월 17일 1판
2020년 10월 24일 2판
2024년 12월 17일 2판-수정중

저 자 **김 효 성**

발행처 **옛신앙 출판사**
Old-time Faith Press
www.oldfaith.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내
02-334-8291, 팩스 02-337-4869
oldfaith@hjdc.net

등록번호: 제10-1225호

ISBN 978-89-98821-60-9 03230

옛신앙출판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출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背敎)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출판사 서적 안내

1.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7판]. 198쪽. 4,000원.
2.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2판]. 170쪽. 4,000원.
3. 김효성, **교회연합운동 비평**. [2판]. 146쪽. 4,000원.
4. 김효성, **복음주의 비평**. [2판]. 166쪽. 4,000원.
5. 김효성, **천주교회 비평**. [2판]. 97쪽. 3,000원.
6. 김효성, **이단종파들**. [6판]. 70쪽. 700원.
7.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4판]. 44쪽. 2,000원.
8. 김효성, **조직신학**. [2판]. 627쪽. 6,000원.
9. 김효성, **기독교 교리개요**. [10판]. 96쪽. 2,500원.
10. 김효성, **기독교 윤리**. [7판]. 240쪽. 5,000원.
11. 김효성,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 166쪽. 4,000원.
12. 김효성, **기독교 신앙입문**. [11판]. 34쪽. 2,000원.
14. 김효성, **창세기 강해**. [4판]. 356쪽. 7,000원.
15. 김효성, **출애굽기 강해**. [3판]. 205쪽. 4,000원.
16. 김효성, **레위기 강해**. [3판]. 164쪽. 4,000원.
17. 김효성, **민수기 강해**. [3판]. 179쪽. 4,000원.
18. 김효성, **신명기 강해**. [2판]. 184쪽. 4,000원.
19. 김효성,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강해**. [3판]. 216쪽. 4,000원.
20.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3판]. 233쪽. 5,000원.
21. 김효성, **열왕기 강해**. [3판]. 217쪽. 5,000원.
22. 김효성, **역대기 강해**. [3판]. 255쪽. 6,000원.
23. 김효성,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3판]. 132쪽. 4,000원.
24. 김효성, **욥기 강해**. [3판]. 190쪽. 4,000원.
25. 김효성, **시편 강해**. [3판]. 703쪽. 10,000원.
26. 김효성, **잠언 강해**. [3판]. 623쪽. 10,000원.
27. 김효성, **전도서 강해**. [3판]. 84쪽. 3,000원.
28. 김효성, **아가서 강해**. [3판]. 88쪽. 3,000원.
29. 김효성, **이사야 강해**. [3판]. 406쪽. 8,000원.
30. 김효성, **예레미야 및 애가 강해**. [3판]. 360쪽. 7,000원.
31. 김효성, **에스겔 다니엘 강해**. [3판]. 295쪽. 6,000원.
32. 김효성, **소선지서 강해**. [2판]. 318쪽. 6,000원.
33. 김효성, **마태복음 강해**. [2판]. 340쪽. 6,000원.
34. 김효성, **마가복음 강해**. [4판]. 224쪽. 5,000원.
35. 김효성, **누가복음 강해**. [3판]. 363쪽. 7,000원.
36. 김효성, **요한복음 강해**. [3판]. 281쪽. 5,000원.
37. 김효성, **사도행전 강해**. [3판]. 236쪽. 4,000원.
38. 김효성, **로마서 강해**. [3판]. 145쪽. 4,000원.
39. 김효성, **고린도전서 강해**. [3판]. 120쪽. 4,000원.
40. 김효성, **고린도후서 강해**. [3판]. 100쪽. 3,000원.
41. 김효성,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강해**. [2판]. 169쪽. 4,000원.
42. 김효성, **빌립보서 골로새서 강해**. [2판]. 143쪽. 4,000원.
43. 김효성,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몬서 강해**. [2판]. 92쪽. 3,000원.
44. 김효성,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강해**. [2판]. 164쪽. 4,000원.
45. 김효성, **히브리서 강해**. [3판]. 109쪽. 3,000원.
46. 김효성,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강해**. [3판]. 149쪽. 4,000원.
47. 김효성, **요한1,2,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3,000원.
48. 김효성, **요한계시록 강해**. [2판]. 173쪽. 4,000원.

☆ **주문: oldfaith.net/07books.htm　　전화: 02-334-8291**
☆ **계좌: 우리은행 1005-604-140217 합정동교회**